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12쪽

최고의 성탄절 선물, 8쪽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배움, 32쪽

성탄절 이야기에 대한 시험, 친8쪽





성 탄절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들과 구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기 위해 선물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최고의 성탄절 선물”, 8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인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심사도정위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블라드, 조셉 빌 워스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케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쿠치,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샘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럿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드, 캐리 카스텐, 제니퍼 메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오라소, 셀리 제이 오데카르,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조슈아 제이 파키, 캄벌리 레이드, 리처드 엠 린드,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뎀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절 튜셔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오, 콜레트 네베커 오오,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배럿,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넬슨, 랜달 제이 픽스톤

사건 인쇄: 제프 멜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유크

배우 책임자: 랜디 제이 맨슨

통 관: 제501호, 제44권, 제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훈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바꾸고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서모니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시어, 타갈로그어, 타미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관련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07 Vol. 31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이들, 우리의 어린 자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18 몽골, 신앙의 초원 지대 **돈 엘 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 26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 32 조셉 스미스의 일지 **마크 애쉬얼트**
맥기, 알렉스 스미스
- 43 후기 성도의 소리 **가장 소중한 선물**
콘수엘로 코네사 레오네
어머니의 성탄절 생취
베티 르바론 모스테르
잊지 못할 성탄절 제리 오 톰슨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나요?
캐롤 시 워츠
신병 헨리 라스무센
- 48 애독자 편지



32 조셉 스미스의 일지

표지

앞: 동방박사, 윌리엄 프레데릭스, 약 1903년경, © 2007 Providencecollection.com, 판권 소유, 그림 00466, 복사 금지. 뒤: 사진: 존 루크

친구들 표지

그림: 짐 매드슨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여 활용하도록 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12쪽: 이 기사에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이 인용하신 경전 구절을 일부 읽어본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탄절 노래를 각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게 한다. 온 가족이 함께 그 노래들을 부른다. 이 경전 구절과 노래들이 구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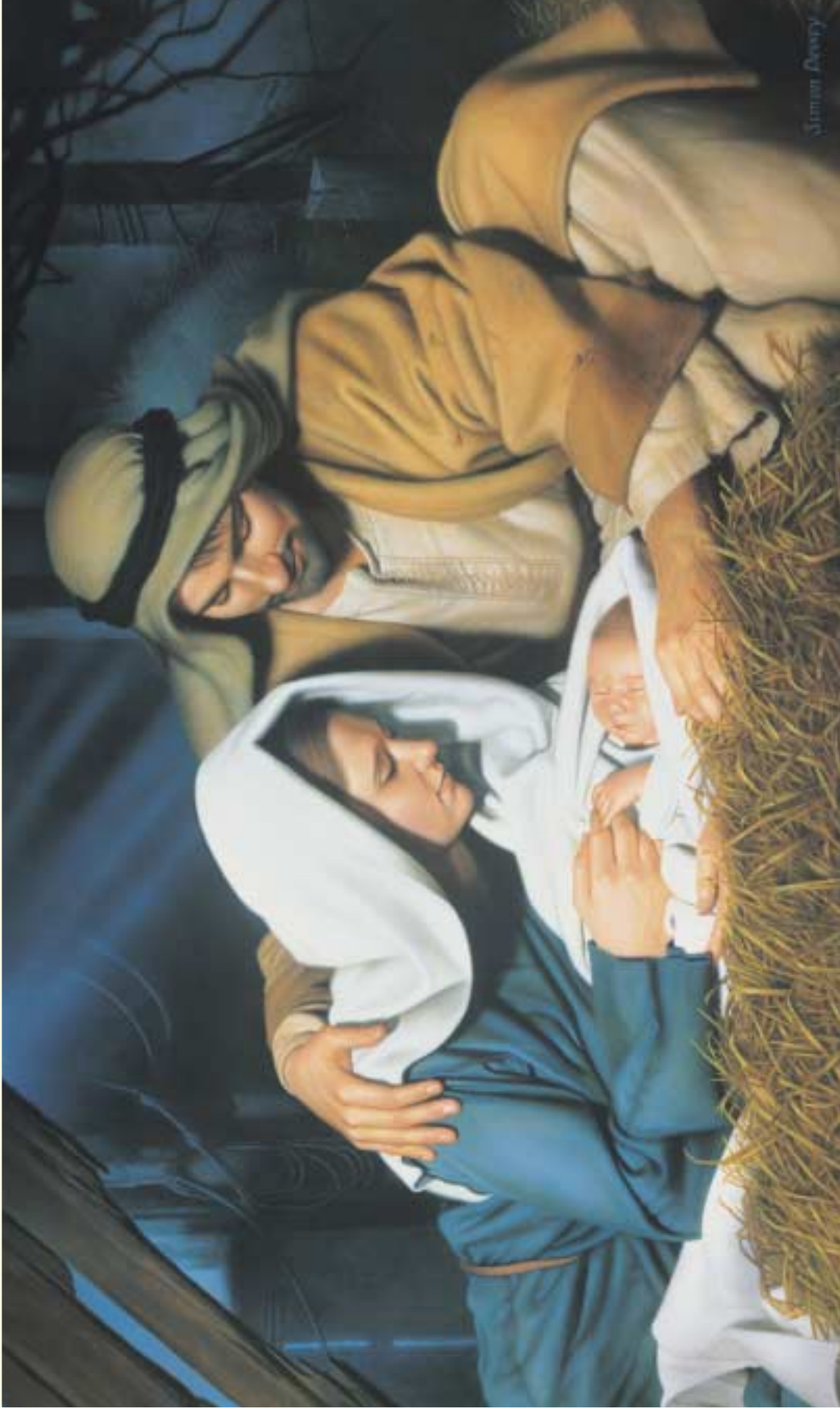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의 일지”, 32쪽:

가족들에게 지난 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나누게 한다. 그들이 일지에 그 일을 기록했는가? 일지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을 읽는다. 일지에 쓸 수 있는 다른 내용들에 대해 토론한다. 우리의 일지가 우리 자신과 가족과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지상의 선지자”, 38쪽: 고든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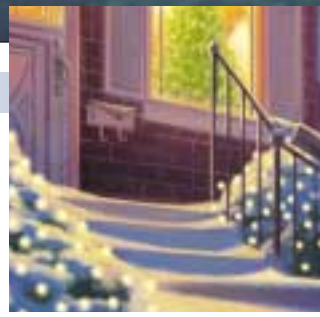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사이먼 듀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또한 니파이후서 19:6 참조)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통가어로 된 정의반 반지를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으로써 어떻게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8 최고의 성탄절 선물
- 1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17 함께 나누는 성탄절 *다이애나 멜리나 알보르노즈 디아즈*
- 24 포스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 38 지상의 선지자 *제이드 스왈츠버그*
- 40 질의응답: “복음 안에서 굳건히 남기 위해 제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친10 성탄절 손님

친14 핫 초코 사건

어린이: 친구들

- 친2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구주께서 탄생하셨습니다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가장 위대한 선물 *엘리자베스 릭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신권 열쇠를 지님
- 친8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인물과 해설 *팻 그레이엄*
- 친10 성탄절 손님 *그웬 에스 존스*
- 친13 특별한 증인: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친14 핫 초코 사건 *멜라니 맥스*
- 친16 색칠하기

17 함께 나누는 성탄절

8 최고의 성탄절 선물



헝클리 회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토론한다. 제이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 살아 계신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성탄절 손님**”, 친10쪽: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의 사랑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가정의 밤에 그들을 초대하거나 그들을

위해 특별한 카드를 만들 수도 있다. 가족이 함께 목표를 세워 이번 주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핫 초코 사건**”, 친14쪽: 니콜이 쇼핑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상황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을 생각해보게 한다. 차례대로 역할극을 하면서 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본다. 지혜의 말씀에 따를 때 받게 되는 약속을 다시 살펴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이번 호의 주제들

숫자는 각 기사의 첫째 쪽을 나타낸다.

친친구들	44, 45, 46, 47쪽,
가정의 밤, 1쪽	친2, 친4, 친8, 친10쪽
가족, 2, 8, 17, 38쪽	속죄, 8,12쪽
간증, 40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친6쪽
경전, 18, 43쪽, 친8쪽	신권, 친6쪽
기도, 12, 46쪽	신앙, 12,18쪽
기록 작성, 26, 32쪽	예수 그리스도, 8, 12, 25쪽, 친2, 친4쪽
기쁨, 2쪽, 친10쪽	예언, 12쪽
기적, 8쪽	일지, 32쪽
물문경, 43쪽	자애, 8, 17, 25쪽, 친10쪽
봉사, 8, 17, 44, 46쪽, 친10쪽	조셉 스미스, 12, 32쪽
사랑, 8, 44, 46쪽	지혜의 말씀, 친14쪽
선교 사업, 8, 17, 18, 47쪽, 친6, 친14쪽	첫번째 시현, 12, 32쪽
선지자, 12, 32, 38쪽, 친6, 친13쪽	초등회, 친4쪽
성탄절, 8, 17, 24, 43,	친절, 8, 17, 44쪽



이들, 우리의 어린 자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 손자손녀들이 어렸을 때 아내와 저는 그 중 몇 명을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저는 공중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보다 손자손녀들과 그 또래의 다른 어린이들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눈앞에 펼쳐진 흥미진진한 광경을 보며 웃다가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생과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 주는 근원, 어린이라는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차 보이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와중에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3니파이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사람들에게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우셨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3니파이 17:23)

참으로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선과 끔찍한 악은 과거에 어린이들을 키우면서 얻어진 결과, 즉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몇 년 후의 세상이 결정됩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면 자녀들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잠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제가 어렸을 때, 제 가족은 과수원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양의 복숭아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농과 대학에서 주최했던 가지치기 시범 행사에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1월과 2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과수원에 가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비록 땅에 눈이 쌓여 있고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나무의 적절한 곳을 잘라내고 톱질을 제대로 하거나 하면 봄과 여름이 되었을 때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들을 향해 햇빛이 내리쬐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2월경이면 이미 9월에 어떤 열매가 열릴지, 얼마나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될지 대부분 알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티 설리번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시거나 크게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실 때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분은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번개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가 평범한 가정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 후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그 어머니는 그 생각을 아기의 마음속에 불어넣는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지진도 번개도 아니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아이들이다.”¹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몇 년 후의 세상이 결정됩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면 자녀들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93:40)

네 가지 의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런 당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것들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네 가지 의무가 포함됩니다. (1) 그들을 사랑하고 (2) 가르치고 (3) 존중하며 (4) 그들을 위해, 또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때 “오늘 아이를 안아 주었나요?”라는 질문이 적힌 자동차 범퍼 스티커가 자주 눈에 띄곤 했습니다. 부모의 애정을 느끼는 아이는 얼마나 많은 행운과 축복을 받은 아이입니까. 그 애정과 사랑은 다가올 미래에 감미로운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무자비함은 오래 전 어린이들에게 가해진 무자비함의 결과입니다.

제가 자란 마을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매우 가까웠고,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고 기억됩니다. 또한 모두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혐오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러한 감정에 대해 회개했지만, 돌이켜볼 때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화를 낼 만한 것도 아닌 일에 격분하여 가죽 끈이나 몽둥이 등 손에 닿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잡고 그의 자녀들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가 자랐던 가정 환경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버지는 어떠한 체벌도 가하지 않으시면서 마치 조용한 마법을 사용하시듯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제가 싫어했던 그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많은 부모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 사람이 이 세상 곳곳에 있는 수천 명의 아동 학대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 복지사와 종합 병원 응급실의 당직자, 대도시의 모든 경찰과 판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때리고 발로 차고 내던지고 심지어는 성적 학대까지 가하는 비극적인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난폭한 아동 학대자들과 다름없는 자들로는 외설적인 목적을 위해 어린이들을 착취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추악한 그림에 대해 오래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이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거나 그분 이들의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순결함과 순수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든지 ...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6) 인류의 구주께서 하신 이 말씀보다 아동 학대자들을 더 강하게 비난하는 말이 또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땅에 눈이 쌓여 있고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나무의 적절한 곳을 잘라내고 통질을 제대로 하거나 하면 불과 여름이 되었을 때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들을 향해 햇빛이 내리쬐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함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랑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보시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브리검 영 회장(1801~1877년)님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그 어머니의 미소 짓는 얼굴은 사랑하지만 찡그린 얼굴은 싫어합니다. 저는 어머니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자녀들이 악한 일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십시오.”²

그분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양육하십시오. 그들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 연구하시고, 그것에 따라 그들을 대하십시오. 결코 화가 난 상태에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³

물론 가족들의 훈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혹하고 잔인한 훈육은 그들을 바로잡기보다는 반감과 냉소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 훈육은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문제를 악화시키며 자멸적인 것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관리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관리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네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네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121:41, 43~44)

끊임없는 모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방식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범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오랜 친구들의 자녀들을 만나 다른 세대인 그 자녀들에게서 그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습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허영심으로 가득한 한 무리의 여성들이 서로 보석을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두 아들의 어머니인 코르넬리아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보석은 어디 있나요?”

코르넬리아는 그녀의 두 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보석이랍니다.” 그녀의 교육 하에 그녀에게서 삶의 덕목을 배우며 자라난 그 아이들은 사람들이 그라쿠스 형제라고 불렀던

여

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방식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범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한 품위 있는
로마인
어머니는
그녀의 두 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보석이랍니다.” 그녀의 교육
하에 자란 그 아이들은 로마
역사상 가장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던 두 명의
개혁가가 되었습니다.

가이우스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즉 로마 역사상 가장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던 두 명의 개혁가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 말하는 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 그들을 양육한 그 어머니 역시 기억되고 칭송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브리검 영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기꺼이 주신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의 중요성과 우리 신앙의 거룩한 원리에 대한 아름다움을 배우도록 하는 일을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그것들을 항상 소중히 여길 것이며 결코 진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⁴

저는 사랑을 듬뿍 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열심히 충실하게 노력했지만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자라나는 상황과,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께 커다란 연민을 느끼며 에스겔의 다음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에스겔 18:20)

이러한 경우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기보다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과 모범, 올바른 가르침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한다는 성스러운 의무에 안일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들, 즉 우리의 어린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배웠으며, 그렇기에 어린이들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르넬리 메르 데 그라크(그라쿠스) 왕자의 어머니, 노엘 뮐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들처럼 순수하고 정직하며 순결하지 않을 경우 그분의 면전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

채닝 폴록은 다음과 같은 흥미롭고도 관심을 끌 만한 글을 적었습니다. “그릇된 것을 경멸했던 청년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 중 일부는 ... 나이 든 상태로 태어나서 점점 젊고 깨끗해지며 점점 단순해지고 결백해져서 결국에는 어린아이들의 깨끗한 영혼과 함께 영원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⁵

힘의 근원

어린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세상은 복잡하며 어려운 곳입니다. 그들은 많은 역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힘과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더 높은 권능으로부터 오는 더 위대한 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찾아낸 것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들 자신의 모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지식 및 그들의 간증에서 오는 설득의 힘일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어릴 때 그 힘의 근원을 알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그 힘은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중대한 결정의 순간, 거룩한 성신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아들 또는 딸의 머리 위에 얹고 신권의 권세로 아버지의 축복을 주는 아버지들 앞에서 저는 경건해집니다.

모든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고,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며, 모범의 힘으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어려운 시기에 거룩한 성신의 권세로 그들을 축복한다면, 또한 모든 어머니가 그녀의 자녀를 삶의 보석으로 여기고,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주님의 지혜와 권고 안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키운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고대의 이야기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이사야 54:13)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큰 평안과 기쁨이 있으리라.” ■

주

1. Charles L. Wallis, ed., *The Treasure Chest* (1965년), 53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341쪽.
3. *가르침: 브리검 영*, 172쪽.
4. *가르침: 브리검 영*, 172쪽.
5. “The World’s Slow Stain”, *Reader’s Digest* 1960년 6월, 77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구주의 그림을 보여 준다. 힝클리 회장이 본 메시지에서 인용하신 경전 구절을 읽고 토론하도록 가족들에게 권유한다. 본 메시지에 나오는 예를 통해 경전 구절을 설명한다. 이 구절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다.
2. 파급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물이 담긴 그릇에 작은 물체 하나를 떨어뜨린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네 가지 의무”의 일부를 읽는다. 본 메시지의 마지막 두 문단을 읽고 마친다.
3. 가족 중에 어린이들이 있다면 가족 중 일원이 흉내 내기를 하면서 모범의 힘을 설명한다. 그 사람은 손뼉을 치거나 세 발자국을 걷거나 돌아설 수도 있고 그 밖의 다른 행동도 할 수 있다. “끊임없는 모범”에서 첫 번째 문단을 읽고 그 로마 여성과 자녀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는다. 그녀의 모범이 그녀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토론한다. 그 부분에서 한두 가지 인용문을 나눈다. 모범의 힘에 대해 간증한다.

최고의 성탄절 선물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신앙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성 탄절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들과 예수님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기 위해 선물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을 것을 고대하면서 들뜨게 됩니다. 선물의 크기나 형태는 다양할지 모르나 가장 최고의 선물은 포장할 수 없는 것인 듯합니다. 봉사, 가족, 신앙, 간증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독자들이 주고 받은 선물에 대해 나와 있는 다음 추억들을 읽어보십시오.

제일회장단 성탄절 모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탄절 경험은 제가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 반 되던 해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회장단의 성탄절 모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 좋았지만 특별히 성탄절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욱 좋았습니다.

예배실에 앉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강한 영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으며 저는 성탄절의 참된 정신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이 그날 이후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탄절마다 제가 원하던 선물을 항상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이 교회가 그분의 참된 교회라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엘바로 엠, 우루과이

간단히 상기시켜 주는 것. 제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외할머니께서 주신 베갯잇과 로켓 (역주: locket-사진 등을 넣어 목걸이 등에 다는 조그마한 갑이 달린 목걸이입니다. 간단한 선물이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광색으로 베갯잇에 제 이름이 써여 있고 아래에는 "기도했나?"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침대에 털썩 누우려 할 때마다 그 글씨는 저에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게 일깨워 줍니다.

그 로켓에는 제 사진과 구주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베갯잇이 제게 집에서 기도할 것을 일깨워 준다면, 로켓은 제게 학교 또는 어디를 가든지 구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페이지 아이, 미국 유타 주

손수 만든 카드. 저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직접 만듭니다. 제가 준 최고의 성탄절 선물은 제가 손수 만든 카드입니다. 카드 만들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 바늘, 천, 카드 꾸미기 재료와 같이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합니다.

캐시 더블류, 미국 워싱턴 주

종이 별. 저는 태국계 미국인이며 태국 옆에 있는 라오스에서 3년간 살았습니다. 첫 2년은 라오스에서 살았고 제 부모님은 로자나라는 보모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주 잘 돌봐주었습니다. 로자나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성탄절 때 그녀가 제게 선물을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저는 적어도 백 개는 죽히 될 것 같은 조그만 입체 종이 별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파랑색, 분홍색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자나는 제게 선물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 그 종이 별들을 접어서 친자식도 아닌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성탄절 선물이자 시간과 노력의 선물이었습니다.

파에 에이치, 미국 버지니아 주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성탄절이란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으며 색색의 전구들이 반짝거리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온 후 어느 12월, 저는 저를 침례 준 한 선교사에게서 편지와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편지에 적힌 여러 가지 내용 중 다음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성탄절은 가족들과 함께 멋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날입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 모두에게 전화하여 성대한 성탄절 저녁 식사에 함께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족이 한데 모여 성탄절을 축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언니들과 저는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저녁 식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 간단한 일로 어머니는 아주 행복해 하셨고 가족들 모두 함께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날의 성탄절은 제가 맞이한 것 중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탄절이 가족과 함께 구주의 탄생을 경축하는 때라고 제게 상기시켜 준 간단한 카드와 편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가족이 함께 성탄절을 축하해 오고 있습니다.

게델바 에스, 브라질



“성탄절의 정신은 사랑과 관대함,
그리고 선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영혼의 창을 비추어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상을 넘어서서 사물보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쏟게

해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귀중한 선물”, 제일회장단
성탄절 특별 모임, 2006년 12월 3일.

집을 떠나서 맞은 성탄절.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선물은 부모님과 언니와 함께 오빠네 가족을
방문하러 가기 위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맞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족끼리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지만, 그 해 다른 형제자매들이 다른
곳으로 갔고, 오빠 조쉬와 그의 가족마저 우리
집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만약 성탄절을 우리 집에서 보내지

않는다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언니와 저는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받았습시다.

오빠가 공항으로 우리를 마중나왔을 때, 네
살짜리 조카인 키알리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저는 조카들이 선물을 열어보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받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열어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자 더
기뻐했습니다.

한나 에스, 미국 몬테나 주

살아 있는 성탄절 카드.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성탄절 날 있었던 모든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반자에게
“살아 있는 성탄절 카드가 되어서 우리
이웃을 방문합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가정에서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멋진 캐롤을 부르고 관련된
경전 구절을 나누면서, 저는 매우
특별하고도 심오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저는 구주의 사랑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전에는 우리를 미심쩍게 바라보던
이웃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저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셨던 그분의
탄생에 관해 우리 이웃들과 메시지를 나누었다.
영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고 영원토록
단결시켰다.”
니발도 피, 브라질

O EVANGELHO SEGUNDO
MATEUS

HINOS

침례는 선물.

동반자와 저는 마사라는 열네 살짜리 소녀를 가르치고 있었고 그녀는 거의 침례와 확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사의 토론을 몇 번만 더 하면 되었으나, 교회에 오려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토론을 좋아했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모를 위해 일했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사가 결정하는 데 힘들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에게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 가르치면서 기도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성탄절 전날에 비가 내렸습니다. 거의 귀가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사의 집에 잠시 들러 인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두드리려는 찰나에 마사의 뛰어 나와 우리를 안고서는 기쁨에 차서 펄쩍 펄쩍 뛰었습니다. 마사의 "이제 더 이상 일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 갈 거예요! 침례 받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나자 내리던 비까지 멎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는 데 성탄절 이브가 가장 좋은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에린 비, 미국 유타 주

가족. 제가 받은 최고의 성탄절 선물은 형제자매와 아버지와 제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것으로 인해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 하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또한 정말 행복했습니다. 헤더 알, 미국 유타 주

건강이라는 선물. 10월에 우리는 사랑하는 스테이크 회장님이 심장 발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스테이크 회원들은 그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이 매우 걱정하는 가운데 스테이크 회장님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 나시고 놀라울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성탄절 전 어느 일요일, 예배실에 들어가던 저는 단상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사들이 말씀한 뒤, 스테이크 회장님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신 일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성탄절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티 비, 미국 워싱턴 주 ■

선물 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www.lds.org의 "Gospel Library"로 가서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쓰신 "기쁜 마음으로 베품"(리아호나, 1996년 12월호)을 읽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주께서 태어나셨을 때 주의 천사가 겸손한 목자들에게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이야기에는 하늘에 새 별이 나타나거나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하늘의 기적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세기 동안 예언하고 간증한 것들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기적적인 일들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구주의 탄생, 삶,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해 많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신성한 기록은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우리 구주의 강림뿐 아니라 반드시 올 영광의 날인 재림에 관해서도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해서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개조 제4조 참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1)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지도 않은 우리의 구주에 대해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경전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 해 주느니라.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믿게 해 주나니, 이는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충실하면 그들도 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6: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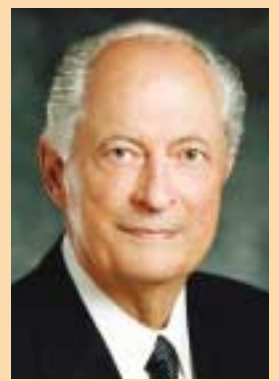
선지자를 믿음

태초부터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지상에서 하시게 될 사명과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그분들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구주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고대 미대륙에서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은 구주가 탄생하실 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늘에 큰 빛이 있어 ...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을 것임이라.” (힐라맨서 14:3)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을 믿었으며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 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니파이인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들에 둔감했으며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 몇 가지를 그들이 옳게 알아맞혔을지 모르나 ...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우리는 어떻게 보지도 않은 우리의 구주에 대해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구주의 탄생, 삶,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해 많은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오리라 함은 이치에 닿지 아니하나니”(힐라맨서 16:15~18)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적 그리스도라 하는 몇몇 반대자들이 구주와 그분의 속죄가 필요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려 합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한 낮과 한 밤과 또 한 낮이 있으되, 마치 한 낮인 것 같”(힐라맨서 14:4) 왔을 때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의 가슴에 가득 찼던 기쁨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만사가 선지자들의 말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제3니파이 1:20)졌습니다. 선지자들의 약속처럼 새 별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주를 알아보았고 축복을 받아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은 “조금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주가 오셨고 절정의 시기에 사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취되어야 할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간증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경이로움에 대해 증언하며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믿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증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암흑 속을 걷고 있으”(교리와 성약 95:6)면서 현대 예언의 빛을 통해 보기를 거부하며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찾음

저는 살아오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따르는 훌륭한과 관대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살아 계시고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분의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과 구원의 의식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놓치고 맙니다.

저와 절친했던 친구 한 명이 어느날 사랑으로 가득찬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헤일즈 장로, 나는 믿고 싶고 또 언제나 믿기를 원해 왔었네. 하지만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고 기록했습니다. 성탄 절기 혹은 한 해 중 어느 때라도 이 메시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의 종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말씀들을 그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은 하셔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즉, 배운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후 주의 깊게 상고하고 스스로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노스가 배웠듯이 듣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이노스서 1:3)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과 신앙을 키워 주는 이노스의 경험을 살펴봅시다.

먼저, 이노스는 그의 부친에게서 복음 진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그는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대한 부친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이노스서 1:3) 셋째, 이노스는 그 가르침이 참된지,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노스의 표현대로 “[그의 영혼이 주렸던”(이노스서 1:4) 것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영적인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노스는 다음과 같은 구주의 약속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제3니파이 12:6) 넷째, 이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이노스서 1:4)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노스는 기도했을 때 겪은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그가] 가졌던 씨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앙은 찾아 왔습니다. 성신의 힘으로 그는 스스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노스와 같은 신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보상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또 쉬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다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우 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노스와
같은 신앙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다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신앙을 통해 힘을 얻음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시련의 경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의문들에 대해 그분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이 지상에서 필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상에서 필멸의 여정이 끝난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시련은 우리 모두에게 오기 마련인데, 필멸의 삶에서 그러한 시련이 올 때,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희망과 이해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노스처럼 마음의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고 더욱 강해지며 형제자매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소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 또한 우리 구주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강화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속죄의 영향에 대한 선지자의 몇 가지 증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증언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여러분 영혼의 주림이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그 주림을 채우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날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와서 이르되, 나는 태초부터 또 이후로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독생자니라. 네가 타락하였으므로 구속될 수 있나니, 온 인류가, 곧 원하는 자마다 그러하리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구주의 방문을 받았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니 ...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라.”



하나라.”(모세서 5:9)

암몬은 “보라,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보았음ियो, 그가 나아오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실 것임이로다”(앨마서 19:13)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네 살의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행사했고 “하나님께 구하라”(야고보서 1:5)는 야고보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첫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첫번째 시현은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16년 뒤,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는 구주의 방문을 다시 받았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니...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라.”(교리와 성약 110:2~4)

신앙에 주려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예수를 구하”(이터서 12:41)기를 권유합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들의 간증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신을 통해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필멸의 삶에서 오는 시련들을 기쁘게 받아들일게 되고 영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지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성탄절에, 그리고 일년 내내 우리 가슴속에 지녀야 할 놀라운 진리입니다. ■



서부 그림: 내 믿음의 소망, 윌리엄 레인, 교회 역사 및 미술품물관 제공;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 나타나신, 윌리엄 레인, 교회 역사 및 미술품물관 제공

함께 나누는 성탄절

우리는 후기 성도가 되어 맞이하는 첫 성탄절이 뭔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나눔을 통해 그 성탄절은 특별하게 되었다.

다이애나 멜리나 알보르노즈 디아즈

내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인형 공장에서 얻어 온 일감으로 재봉일을 하셨다. 어머니는 집에서 일하셨지만 일감을 더 많이 가져오고 만든 제품을 다시 갖다 주기 위해 공장에 가곤 하셨다. 어머니는 봉제한 인형을 한 아저씨에게 가져다주셨는데, 그 아저씨에게는 뭔가 특별한 테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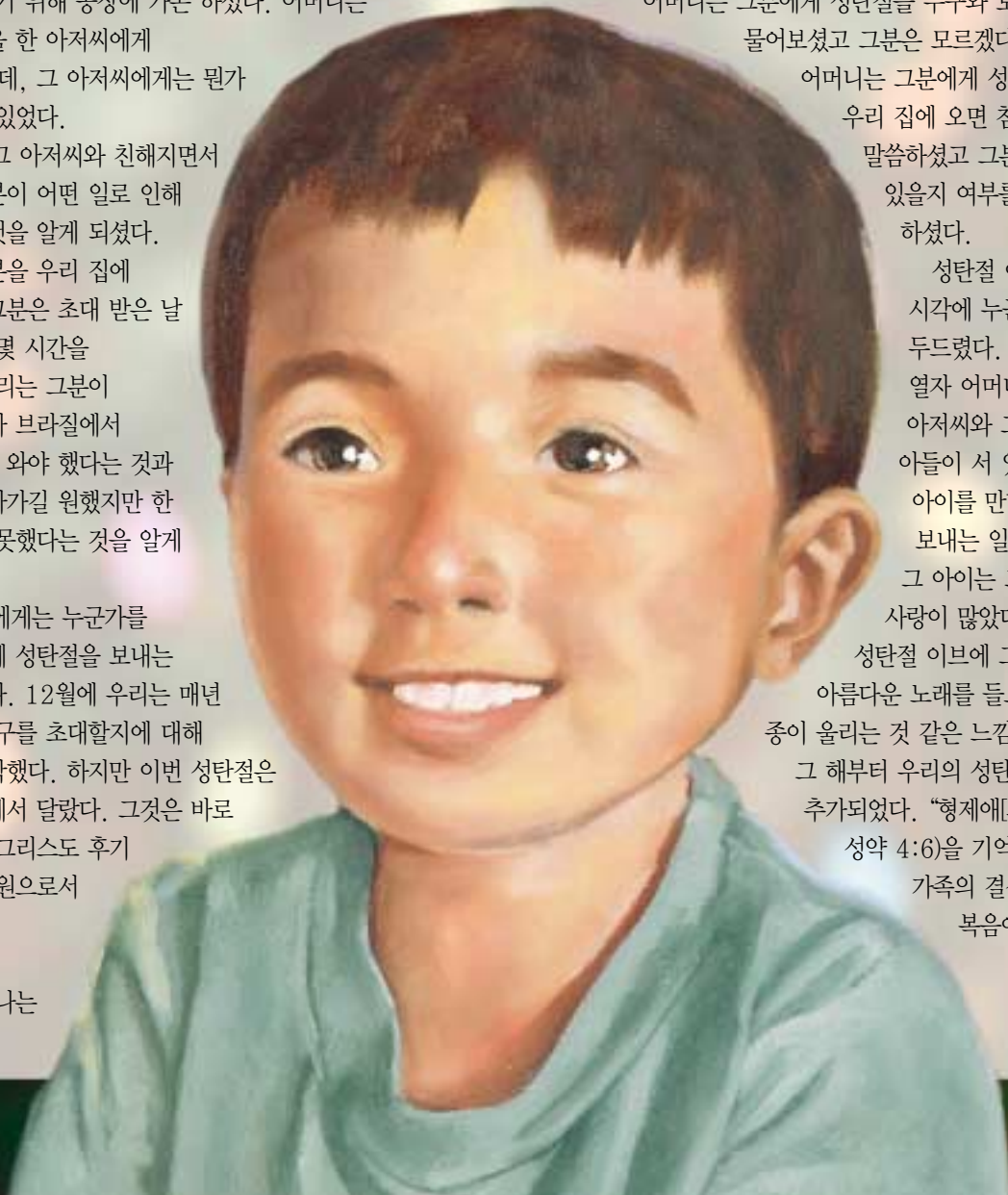
어머니가 그 아저씨와 친해지면서 어머니는 그분이 어떤 일로 인해 슬퍼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어머니는 그분을 우리 집에 초대하셨고 그분은 초대 받은 날 우리와 함께 몇 시간을 보내셨다. 우리는 그분이 일거리를 찾아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로 와야 했다는 것과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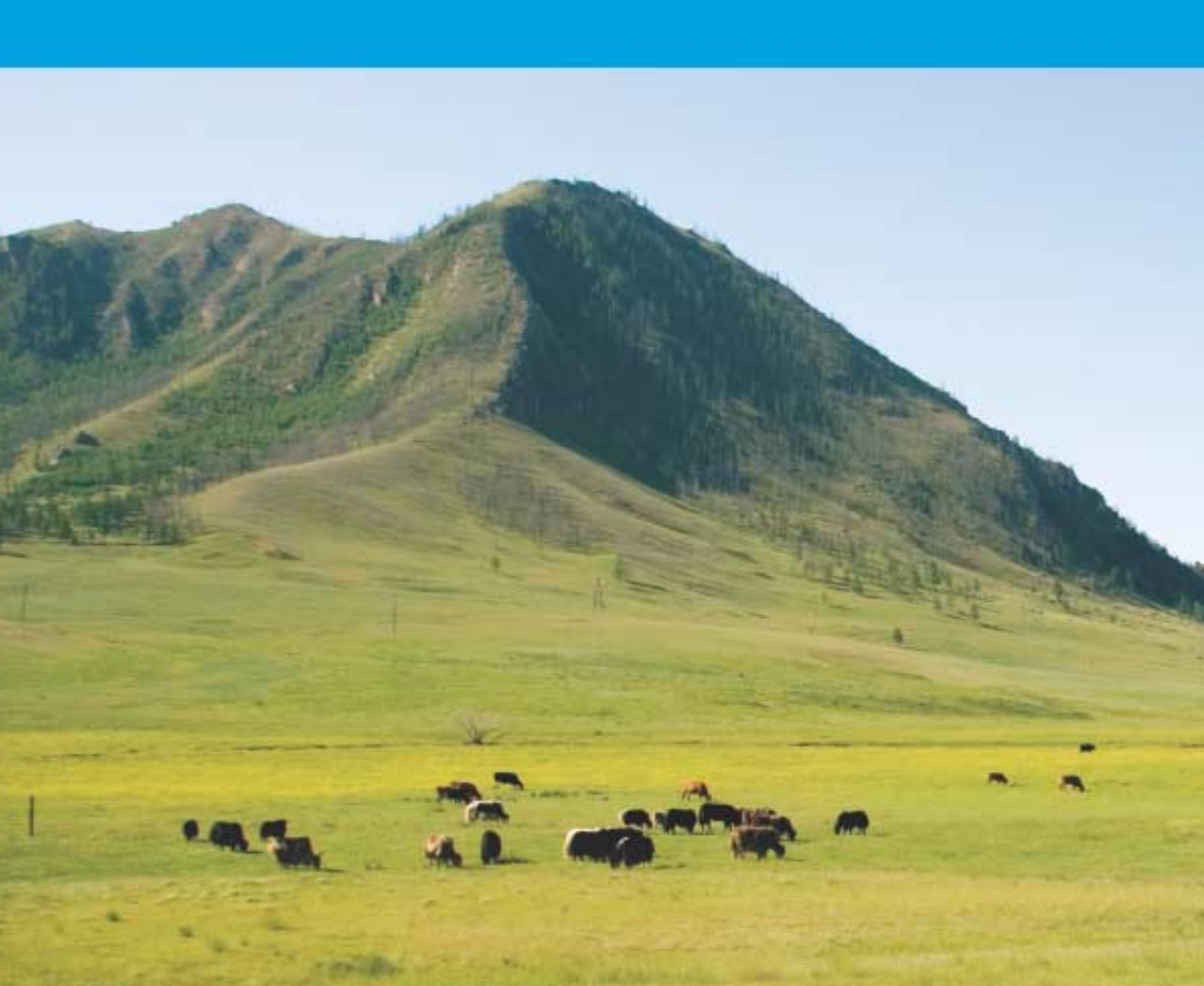
우리 가족에게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성탄절을 보내는 전통이 있었다. 12월에 우리는 매년 그랬듯이, 누구를 초대할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은 특별한 이유에서 달랐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맞이하는 첫 성탄절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동료들 먼저 떠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아저씨를 초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다. 어머니가 만든 인형을 가지고 아저씨에게 가셨을 때, 어머니는 그분에게 성탄절을 누구와 보낼 것인지 물어보셨고 그분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셨다.

어머니는 그분에게 성탄절 이브에 우리 집에 오면 참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성탄절 이브의 늦은 시각에 누군가 우리 문을 두드렸다. 우리가 문을 열자 어머니의 동료인 그 아저씨와 그분의 세 살짜리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아이를 만나 저녁을 함께 보내는 일은 정말 신났다. 그 아이는 그 아저씨처럼 사랑이 많았다. 우리 가족은 성탄절 이브에 그 아이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가슴속에 종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 해부터 우리의 성탄절 영예 복음이 추가되었다. “형제애[와] 사랑”(교리와 성약 4:6)을 기억하겠다는 우리 가족의 결심을 키워 준 복음에 감사한다. ■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프레브수렌, 몽골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 문크사이한, 울란바토르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 버드, 귀환 선교사. 반대쪽: 독신 성인들이 공과를 듣기 위해 데니스와 캐시 김슨 부부 선교사의 아파트에 모임.



몽골, 신앙의 초원 지대

몽골인들에게 복음은 다소 생소한 것이었으나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면서 그들 주변의 세상도 변화시키고 있다.

돈 엘 설
교회 잡지

몽골 란바토르 교외의 산기슭에 있는 징기스칸 조각상이 몽골의 수도를 내려다보고 있다. 위대한 칸의 거대한 동상은 그가 한때 대부분의 아시아, 중동, 그리고 일부 동유럽을 포함한 제국을 정복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불과 25년 만에 몽골 군대는 고대 로마 군대가 400년 동안 정복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다. ...

징기스칸은 역사상 그 어떤 사람이 정복했던 영토보다 두 배 이상의 영토를 정복했다.”¹ 칸의 후예들과 그들의 영향력은 앞으로 다가올 수세기 동안의 역사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이다.

2006년 7월, 몽골은 몽골제국 건국 800주년을 기념했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몽골을 “개발도상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용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활기 넘치고 창의적인 몽골인들은 그들의 나라와 자신들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도 의미한다. 1920년대부터 1990년까지 몽골에서는 공식적으로 종교가 허가되지 않았다.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1993년에 처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다. 지금 몽골에는 두 개의 지방부와 20개의 지부, 그리고 6,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선교사들은 많은 몽골인들이 복음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다음은 몇몇 몽골 회원들의 이야기이다.

프레브수렌

Sh. 프레브수렌은 소련에서 대학에 다닐 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배웠다. (몽골인들은 보통 이름으로 부르며 직무상의 목적으로 성의 약자를 이름 앞에 쓴다.) 그는 한 친구에게서 성경을 샀는데, 그 책의 한쪽 면에는 러시아어로, 마주보는 면에는 같은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었고, 프레브수렌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밤에 몰래 읽었다. 성경을





위: 오드지벨 (왼쪽),
울란바토르 지방부 회장;
소울마, 최초의 몽골인
선교사; 안크바야르, 귀환
선교사. 아래: 초등학교
지도자가 어린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침. 반대쪽,
위: 몽골 천막집에 있는
아디아블드와 그의 가족.
반대쪽, 아래: 오드지벨
(뒷줄, 모자를 쓰고 있음)과
4대에 걸친 그의 친척들.

공개적으로 읽는 것은 곧 추방을 의미했다. 그의 아버지는 불교의 원리인 명예와 정의에 대해 늘 가르쳐왔고, 프레브수렌은 항상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영적으로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몽골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된 이후였다. 그는 업무차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한 기독교인이 성경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나누었다. 프레브수렌은 내세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하길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 했다.

몽골인 교육자 연합회 대표로서 프레브수렌은 미국에 초청되었고 그곳에서 물몬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유타 주에서 일행을 접대할 한 교회 회원이 그에게 물몬경을 한 권 주었던 것이다. 프레브수렌은 물몬경을 짧게 훑어보고는 더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2000년 9월, 그의 가족은 몽골에서 봉사하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을 만났고 선교사 토론을 들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물몬경을 읽었고 그가 찾고 있던 진리를 발견했다. 그 해 11월, 그와 그의 아내는 침례를 받고 회원으로 확인되었다. 불과 일이 주 후에, 그는 지부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처음에 그의 자녀들은 이 새로운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유난히 부정적이었지만, 선교사 토론을 들어 볼 것을 권유하는 아버지의 요청에 순종하기로 했다. 결국, 두 자녀 모두 침례를 받고 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그의 아들은 아이다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현재 프레브수렌은 2001년부터 몽골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 직책에서 봉사하며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현재 몽골 종교 교육원에는 약 600명의 학생이, 세미나리 과정에는 약 700명의 청소년이 등록되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종종 가족의 반대에 부딪치고, 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적 부담과 교통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이와 같은 숫자는 2001년 이래 약 300% 증가한 것이다.

맡은 책임을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가장 훌륭한 것은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려와, 그들 중 수많은 아이들이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소울마

U. 소울마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의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저는 문제아였어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술과 파티를 즐겼다. 그녀가 몽골로 돌아온 후 예전에 자신과 함께 파티를 즐겼던 한 친구가 교회에 참석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매우 놀랐다. 그녀의 친구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듯했다.

소울마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낯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에 그녀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다. 마침내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흥분되는 감정을 느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한 그녀는 곧 평화와 소속감, 삶의 목적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찼다. 소울마는 친구의 교회에 가입했고, 1995년에 소울마와 친구는 몽골에서 부름 받은 최초의 전임 선교사가 되었다. 소울마는 유타 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현재 그녀는 몽골 교회의 자재 관리 책임자이다. 그녀는 공보 책임자,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그리고 지부의 복음 교리반 교사이기도 하다.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특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 삶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몽골에서 교회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 후기 성도에 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정보들이 더 많이 있다. 따라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회원들은 교회의 최고 대표자들이다. “회원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과 행복함때문에 눈에 띕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회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감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다른 나라에 있는 후기 성도들처럼 몽골의 교회 회원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가족과 같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오드지렐

1995년에 어머니가 한 기독교 교회를 방문하라고 권유했을 때, O. 오드지렐은 어머니가 이미 그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어머니는 공공 도서관에서 일을 했으며, 도서관 내의 강당 임대를 담당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강당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이끌린 그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모임에



초대 받았다. 이후에 그녀는 선교사 토론을 듣고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었다.

오드지렐은 그의 부모가 러시아에서 학생이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고,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으며 그것은 그에게 종교와도 같았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죽기 전에 인생을 만끽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술과 사교 모임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렇게 방탕한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많은 몽골인들처럼 오드지렐도 몰몬경을 읽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다. “몽골인들은 복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라고 오드지렐은 말한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오드지렐 또한 그랬다. 그는 신이 존재한다고 느꼈다. 복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찾았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통해 몽골 사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음주는 하나의 문제이며, 부도덕 또한 그렇다. 몽골에는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 강하게 부각되는 세상적인 표준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것에 대항할 만한 강한 종교적 전통이 이 나라에는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몽골인들은 자신의 삶을 인도할 의로운 방법을 찾는다고 오드지렐은 말한다.

오드지렐은 11개의 지부와 약 3,700명의 회원이 소속된 몽골 울란바토르의 지방부 회장이다. 그곳은 회원의 약 70%가 독신 성인이다.

안크바야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E. 안크바야르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 남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현재 20대 중반인 그는 울란바토르 지방부의 독신 성인 대표이다.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당시 그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서 두 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부름장을 읽어 주어야 했다. 그는 현재



울란바토르 교회 사무실에서 배부 센터를 관리하며, 회원들이 몽골어 복음 교재와 영어 교재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 선교사로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왔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안크바야르는 그의 가족인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1998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의 가족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그는 그에게 영향을 끼친 꿈을 두 번 꾸었다. 그는 그 두 꿈에서 어떤 파멸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데, 눈부시게 빛이 나는 한 사람이 그를 구해줬던 것이다. 후에 부모님은 안크바야르에게 꿈속에 나타난 그 사람은 의심의 여지없이 구주라고 말씀했고 꿈의 의미에 대해 기도할 것을 그에게 권유했다.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결국 그가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가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선교임지에서 안크바야르는 교회 회원들이 가족처럼 느껴졌다. 지금 그는 친구들이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다.

그가 복음을 나눔으로써 침례와 확인을 받은 사람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여자 친구이다. 그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젊은 몽골 부부들이 겪는 바와 같이, 주거할 곳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치솟는 주택 가격은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부담이 된다. 젊은 부부들은 결국 부모님과 함께 작은 아파트 또는 저(ger)라고 하는 원형 모양의 방 하나가 딸린 몽골 유목민의 전통 천막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마지그수렌

몽골에서는 선교사들의 길전도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이나 회원들의 소개를 통해 구도자와 만난다. 복음을 알게 된 몽골인들이 선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많은 친척들이 종종 같은 지부에 속해 있다.

Z. 마지그수렌은 몽골 다칸시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그녀의 남편과 10대의 두 딸, 그리고 몇몇 친척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녀의 딸과 사위, 손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아기도 함께 산다. 마지그수렌의 사위, A. 소론조볼드는 다칸 지방부의 회장이다. 그녀의 아들, Kh. 세르젤렌은 다칸 2지부 회장단의 제1보좌이며, 마지그수렌은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1996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다칸시에 왔고, 그녀는 1997년에 침례 받고 회원이 되면서 그 도시의 초기 회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저의 모든 자녀들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다. 마지그수렌은 리하이가 시험에서 보았던 생명나무의 열매(니파이전서 8장 참조)를 기억한다. “저는 그 열매를 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녀들 역시 그 열매를 먹기 원했다. 마지그수렌은 그녀의 두 자녀가 홍콩 성전에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딸 K. 세랜지와 사위 소론조볼드, 그리고 아들 세르젤렌과 며느리 T. 알탄투야) 인봉된 것에 감사해 한다.

“회원들은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신앙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신앙이 없으면 교회에 참석하거나 기도할 수 없고 신앙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들 세르젤렌은 어머니와 누이가 교회 회원이 된 후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부부 선교사가 어머니에게 리하이의 이야기를 가르칠 때 함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도 자녀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인도하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몽골 회원들처럼 세르젤렌은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물론경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라고 말한다. 그는 모로나이 장군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는 또한 야곱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너희는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에 감동을 받는다.

세르젤렌은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열매를 맺을 씨앗을 심었다고 믿고 있다. 1993년 이래로, 530명이 넘는 젊은 몽골인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 중 300명이 넘는 인원이 미국으로 부름을 받았고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봉사했다.

세르젤렌의 처남인 소론존볼드는 열여덟 살 때부터 교회 회원이었고 20대 중반인 지금은 다섯 개의 지부가 있는 다칸 지방부의 지방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이다. “교회에서 수행하는 제 부름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라고 그는 말한다.

소론존볼드는 “몽골인들은 교회에서 회원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요.”라고 말한다.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지금 그는 복음에 관해 가능한 많이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우리의 과제는 배우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문크사이한

복음을 알기 전에 A. 문크사이한은 세상은 희망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신앙과 희망을 찾은 그녀에게 세상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1990년 이전에 러시아어를 가르쳤던 그녀는 몽골의 정치 문화적 환경이 바뀌자 가르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문크사이한은 후기 성도 선교사들과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다. 선교사 토론을 듣기 전에 그녀는 그들의 종교를 유심히 지켜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종교가 참된 원리에 기초를 둔 신앙 이상의 것이며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0년 6월에 그녀는 침례 받고 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한 달 후에는 나머지 가족들도 교회에 들어왔다. 이제 그녀는 이 세상이 자기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손자손녀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밝고 희망이 넘치는 곳이라고 느낀다. 현재 그녀는 울란바토르 지방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복음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후 문크사이한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복음 원리들을 직무에 적용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고의로 말썽을 피우는 학생을 포함해 그녀의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역량이 점차 커지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 또한 달라졌다.

“복음 안에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경험이 말해주듯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복음이 몽골을 변화시킬 수 있다.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면서, 그들 주변의 세상 또한 변화시킬 것이다. ■

주

1. Jack Weatherford,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2004), xviii.

위, 왼쪽: 두 몽골 귀환 선교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함. 마지그수렌, 다칸시의 개척자 회원. 투브신자갈, 울란바토르 지방부의 초등회 회장, 그리고 그녀의 딸 아누다리. 아래: 산기슭에 세워진 징기스칸의 동상. 반대쪽: 해마다 열리는 나담 축제에서 가수들은 몽골 군대를 상징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1907~1995):

“[구주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4~35)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애 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모로나아서 7:47)이라 불리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인류라는 가족에 속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품어야 하는 사랑이며 구주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지니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희생하신 것은 이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이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의 피로’ (교리와 성약 88:125) 두르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면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기꺼이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일치되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행동을 하도록, 진실로 하나님을 추종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우정의 손을 내밀 필요가 있고,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게 대하며, 더 많이 용서하고, 조금 더디 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61~63쪽)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도록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이더서 12:28: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 곧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인도[하느니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도록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나면, 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엘마서 5:26) 결심하게 되고, 가슴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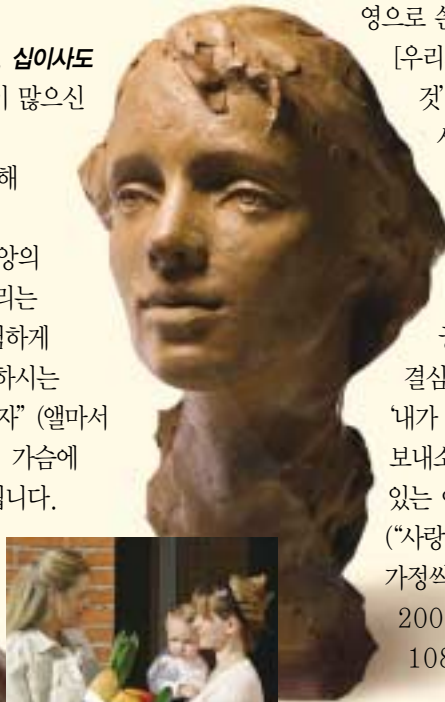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니파이전서 11:22~23)임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키움”,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27쪽)

앤 시 핑그리,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제2보좌: “우리는 작고 단순하며 순수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시작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애, 즉 구주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구하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하며 강한 사랑’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사랑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상태, 곧 존재의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매일 베푸는 사랑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 오직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8~109쪽) ■



성인 사진: 사진 촬영, 헨리 안스, 모델이 묘자를 취함; 기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먼드; 태두리: © PHOTOSPN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음지니

현재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인 칠십인 정원희의 딸린 케이 켄스 장로는 최근 이 중요한 직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교회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왜 후기 성도들은 기록을 계속해 나가고 교회 역사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습니까?



딸린 케이 켄스 장로: 경전, 특히 몰몬경에서는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근본이자 구원의 원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돕기 위해 기록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미래를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더욱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1830년 4월 6일,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음지니”(교리와 성약 21:1)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의 직분은 이 계시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선지자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곧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첫 번째 역사가 겸 기록자로 불렀습니다. 처음에 올리버는 모임의 의사록, 축복사의 축복문, 회원 정보 및 신권 성임 증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의 서사적 역사로 불릴 수 있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기록 보관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켄스 장로: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의 일은 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 역사 출처의 수집 및 보존, 의식 기록, 의사록 수집 등이 포함됩니다. 경전에는 또한 “교회의 유익”과 앞으로 “일어나는 세대들”(교리와 성약 69:8 참조)을

위해 기록이 사용되고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가 겸 기록자로서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므로 때로는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바로 교회 초창기 때, 어떤 때는 기록자가 지명되고 어떤 때는 역사가가 지명된 이유이며,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역할이 하나의 부름으로 합쳐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하며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켄스 장로: 교회 역사의 첫 번째 목적은 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정립하고 신성한 성약을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회복을 증거하며 회복의 근본적인 진리를 수호하고자 노력합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하나님 왕국의 계시된 질서를 보존하도록





반대쪽: 교회의 첫 번째 기록자로 봉사한 올리버 카우드리. 아래: 실제 손으로 쓴 교리와 성약 사본 중 몇 쪽.

돕는 경전상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구원에 필수적인 신권 열쇠의 행사, 신권 정원회의 합당한 기능, 의식 수행 등에 필요한 질서와 연속성을 제공하는 계시, 문서, 절차, 과정 및 형식 등이 포함됩니다.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로서의 직분은 그 외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젠슨 장로: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는 역사 문제에 관하여 교회의 권위 있는 목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질문은 항상 있으며 때때로 역사적인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믿을 만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교회 역사가는 교회의 역사적 유적지를 관리하는 역사 유적지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의 Records Management Committee[기록 관리 위원회]의 의장으로서도 봉사합니다. 이 위원회는 교회 및 법인을 포함하여 교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전 세계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하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감독합니다.

가장 필수적이며 신성한 기록 중 하나는 성전 의식 집행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은 제가 느끼기에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교리와 성약 128:24) 책의 일부분으로 보존됩니다. 회원들은 성전 의식의 기록들을 포함한 모든 기록들의 보안에 대해 확신하셔도 됩니다.



깃털펜으로 글을 쓰고 있는 올리버 카우드리, 로버트 티 배럿,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데이먼드와 제드 클리프 © ARTBEATS

교회 역사에 대해 더 배움

인터넷을 사용하면 교회 역사를 종전보다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역사 웹사이트 www.lds.org/churchhistory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영어판) 중 일부입니다.

- 조셉 스미스 웹사이트.
선지자의 삶과 사명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 사진과 문서가 소개되어 있다.

- Mormon Pioneer Overland Travel [물문 개척자의 육로 여행] (1847~1868). 서부 유타 주로 여행한 개인 및 일행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다.

- 사적지. 교회의 주요 사적지의 위치, 사진, 역사를 보여 준다.

-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교회와 교회 회원들의 역사를 입증하는 미술품 및 유물을 보여 준다.



교회는 역사가 직분의 일에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젠스 장로: 저는 Family and Church History Department[가족 및 교회 역사부]와 함께 일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교회 역사의 필수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역사를 수집, 보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에 걸쳐 서적, 문서, 유물, 사진들을 수집했고, 사적지들을 획득했으며,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승인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과 이것들을 나누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인터넷을 통해 물론경 인쇄 원고 원본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이나 모로나이가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스미스 가족의 오두막집 윗방을 둘러보는 것은 회원들을 교회의 과거와 연결시켜 주며 신앙을 키워 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지역 지도자, 서기 및 스테이크/와드/선교부의 연례 역사 편집 책임자들을 훈련시키고 도와 주는 일 또한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도움으로 역사 정보는 교회 본부로 더 쉽게 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어떻게 신회원이나 여러 세대를 걸친 교회 회원 모두에게 유산이 됩니까?

젠스 장로: 그 어떤 백성도 자기의 역사보다 더 위대할 순 없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조셉 스미스와 그가 참된 교회를 찾는 것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셉의 이야기를 믿을 때 우리는 회복된 복음으로 인해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 후기 성도의 공통된 유산 중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초기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존재와 지속적인 성장 및 존속력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역사에는 교회와 가정에서 알고 가르칠 만한 위대한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커틀랜드의 교훈, 미주리 주에서의 시련, 나부에서의 승리 및 궁극적인 추방, 그리고 개척자들의 서부로의 이주 등은 나라와 언어를 뛰어넘어 모든 후기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평범한 회원들의 삶에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 회복된 복음의 영향과 교회의 출현 및 발전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족 역사의 관계 역시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개 한 이야기를 연구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연구하게 됩니다. 교회의 위대한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이 개인 및 가족 역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들의 개인 및 가족 유산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역사의 유산을 습득하는 과정은 단지 역사 서적을 읽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적지 방문, 역사적 유물을 보기 위한 박물관

방문, 가족 모임 참석, 또는 개인 일지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으로 과거와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검 기록자로 봉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젠스 장로: 경전이 신성한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글을 쓸 때 그들은 역사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교와 가르침을 줍니다. 예를 들면, 물문경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솔트레이크시티 남쪽 산에 위치한 화강암 동굴 기록 보관소에는 교회 및 가족 역사에 관한 마이크로필름 사본이 다량 보관되어 있다. 삽입 사진: 건축가가 디자인한 새로운 교회 역사 도서관. 2009년 여름 완공 예정.

화강암 동굴 기록 보관소, 사진 촬영: 알토 케이 리스호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니파이와 같은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록했다. 아래: 몰몬경
판의 복제품.

경전이지만 또한 서사적 역사이기도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서 중 가장 훌륭한 역사서로 대표됩니다. 몰몬경은 또한 역사와 교리를 연결해 주는 가장 훌륭한 예가 됩니다. 저는 경전과 역사가 함께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한다는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진리에 대한 경전의 정의, 즉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교리와 성약 93:24)이라는 정의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과거는 보존만 되었다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통찰력과 기초를 제공합니다. 할아버지의 역사이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역사이든, 교회 초기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시련의 역사이든,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후기 성도 군인의 역사이든, 과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우리가 현재를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 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현 경륜의 시대의 기초를 놓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기념비적인 업적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는 그 확신의 모범이 되었고, 그 확신을 가르쳤으며,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

조셉 스미스 학술 연구

젠슨 장로: 저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조셉 스미스 학술 연구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 그가 받은 서신, 그가 개입된 법률 문제, 그리고 그가 받은 계시들뿐 아니라 그가 기록했거나 기록하도록 했거나, 받았던 문서를 모으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술 연구의 결과를 몇 권의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일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쓴 일곱 권의 일지는 그의 생애 동안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

마크 애쉬얼스트 맥기, 알렉스 스미스

Family and Church History Department(가족 및 교회 역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권으로 구성된 작품 중 이번에 출간될 *Joseph Smith Papers*(조셉 스미스 기록) 시리즈의 편집자들. 향후 몇 년에 걸쳐 이 부서는 조셉 스미스의 편지, 일지, 역사, 계시 및 기타 문서 모두를 출판할 예정이다.

1832년 11월 27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첫 번째 일지를 구입했다. 이것은 아마도 같은 날에 받은, 교회 기록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계시에 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85:1~5 참조) 그 일지는 그가 “기록을 위한 책”이라 부른 104쪽 분량의 작은 수첩이었다.

그가 쓴 첫 번째 문장에는 “[그의] 관찰 하에 [들어온] 모든 것의 자세한 기록을 보존하려는” 그의 진지한 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는 말하는 것이 더 편했으므로 글 쓰기의 한계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다.¹ 그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지를 작성하는 기간이 있었는가 하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침묵으로 지나간 공백 기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일지 작성을 계속했다. 그러지 못할 경우 그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게 했다. 드디어 충실하고 믿을 수 있는 서기 윌라드 리차즈 장로의 도움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는 방법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그리고 그를 위해 작성된 일지 시리즈에는 그가 받은 계시 중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사본 몇

개가 포함되며, 그의 설교 중 몇 가지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이 일지 시리즈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생애 동안 있었던 교회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록 중 하나이다.

다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일곱 권의 일지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가 일지를 작성하도록 도운 서기들 중 몇 사람에게 대한 정보이다.

첫 번째 오하이오 주 일지: 1832년~1834년

선지자 조셉은 9일 동안 매일 이 첫 번째 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한 이후, 거의 10개월 동안 중단했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으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난 1833년 10월에야 일지 작성을 다시 시작했다. 이 선교 사업 동안의 기록은 그의 성실성과 영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인격적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조셉은 10월 12일에 이렇게 기록했다. “아주 좋은 느낌이 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지만, [나는] 내 가족이 크게 염려된다.” 그 후 같은 날에 그는 자신과 시드니 리그돈에게 가족의 복리를 확인해 주는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100:1 참조) 1833년 11월 4일에 조셉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돌아오자, 그는 교회의 두 번째 장로인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일지를 받아쓰게 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 가족이 모두 잘 지냈음을 알았다. 이 축복에 대해 그분의 이름에 감사함을 느낀다.”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다른 서기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서기로 올리버 카우드리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선지자는 그의 제일회장단 보좌인 시드니 리그돈 장로와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 장로에게도 부탁했다. 또다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1834년 3월에 조셉 스미스는 함께 여행 중이던 동반자 팔리 피 프랫 장로에게도 자신이 일지 작성하는 것을 돕도록 부탁했다.



그 기록들 모두가 연대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다. 그는 재정적인 내용과 기타 메모를 하기 위해 또한 이 일지를 활용했으며, 그러한 기록들은 일지 전체에 나타나 있다.

이 일지에서 가장 일관된 기록은 1834년 2월 말에서 4월 사이의 기록이다. 이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기 집에서 쫓겨난 미주리 주 잭슨 군의 후기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며 원정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었다.

위쪽: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오하이오 주 일지의 첫 페이지. 삽화: 선지자의 서명이 있는 이 일지의 표지. 지도: 선지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지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기록되었다. 그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일지는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기록되었다. 그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일지는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기록되었다.



선지자의 두 번째 오하이오 주 일지(위쪽)는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아래쪽)의 역사적인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신권의 열쇠를 부여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 오하이오 주 일지:

1835년~1836년

선지자의 두 번째 일지는 “스케치북”이라 불리는 중간 크기의 220쪽짜리 장부였다. 이 일지에는 1835년 9월 말부터 1836년 4월 초까지 커틀랜드와 그 주변에서 있었던 조셉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조셉과 올리버가 이 기록을 시작했으며, 곧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 인계되었다. 곧이어 선지자는 워렌 패리쉬에게 전임 서기로 봉사하도록 요청했다. 비록 워렌이 그 일지의 대부분을 썼지만 조셉 스미스는 그에게 많은 부분을 받아쓰게 했다. 받아쓴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조셉 자신이 썼던 기록보다 훨씬 더 길다. 그 내용은 덜 개인적인 것들이지만 여전히 조셉 스미스의 어투가 나타나 있다. 워렌 패리쉬와 다른 서기들이 작성한 기록은 그 일지가 기록된 기간 동안 있었던 매일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두 번째 일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의 집 근처에 있던 숲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조셉의 첫번째 시현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에는 또한 1823년에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일지에는 아브라함서를 번역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초기 노력이 나타나 있다. 1836년 1월 21일에 받은 해의 왕국의 시현과 대리 의식을 통한 죽은 자의 구속의 교리를 예시하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만일 머물기를 허락 받았더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교리와 성약 137:7)는 계시는 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지의 중심은 커틀랜드 성전 헌납 3일 후에 열린 특별한 모임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그 모임에서 교회 역원들은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 받”기로 되어 있었다. (교리와 성약 105:11) 이에 따라 신권 지도자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이 일지에는 형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개인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졌던 몇몇 평의회와 개인적인 만남이 서술되어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 모임을 위해 신권 정원회와 평의회가 올바르게 조직되도록 이를 재편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형제들이 장로 학교와 연합 히브리어 학교에서 훈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지에는 이 기간 동안 조셉이 히브리어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연구했던 점이 나타나 있다.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러한 노력을 증거하며, 성전 헌납, 특별한 의식을 위한 모임, 그리고 1836년 4월 3일에 있었던 일요 모임을 묘사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장로에게 나타나셨다. 그 후 모세, 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 선지자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의 열쇠를 부여했다. 이 기록은



오른쪽: 화물칸 스틸 이미지. 오른쪽: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워렌 패리쉬가 기록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워렌 패리쉬가 기록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현재 교리와 성약 110편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미주리 주 일지: 1838년 3월~9월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미주리 주 일지는 큰 장부에 69쪽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과 나머지 일지에서 조셉은 서기들에게 그의 활동을 관찰하고 이를 그들 스스로 기록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비록 조셉 스미스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었지만, 서기들의 시각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삶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일지는 분명히 조셉 스미스가 받아쓰게 한 것으로, 미주리 주 칼드웰 군의 파웨스트 후기 성도 지역 사회에 그가 도착한 것에 대한 간략한 회고로 시작된다. 그는 Kirtland Safety Society(커틀랜드 안전 조합)의 재정 파탄에 따른 커틀랜드에서의 배도와 법적으로 시달리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록들은 편지, 계시, 그리고 약간의 설명이나 설명이 전혀 없이 일지에 베껴 쓴 각종 문서들이다. 이 일지는 손으로 쓴 다양한 원고, 즉 기록된 원문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원본책”이라는 제목이 붙여 있다.² 1838년 4월에 기록된 대부분의 편지들과 기타 내용들에는 교회 지도자였던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를 파문으로 이끈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 계시를 제외하고, 이 일지는 교회 본부의 서기 겸 기록자였던 조지 로빈슨이 기록했다. 로빈슨 형제는 과거에 대한 사실 기록을 끝마친 후, 그 당시의 일지 작성을 시작했다. 이 때까지 로빈슨 형제는 제일회장단의 서기로 지명되어 봉사했었고, 일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뿐 아니라 그의 보좌인 시드니 리그돈과 하이럼 스미스에게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838년 4월과 6월 사이에 로빈슨 형제는 정기적으로 일지를 작성했으며 데이비스 군에 인접해 있던 아담-온다이-아만의

후기 성도 지역 사회 건설에 대한 제일회장단의 노력을 기록했다. 또한 로빈슨 형제는 십일조에 관한 계시(교리와 성약 119편 참조)를 포함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수많은 계시를 기록했다.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의 기록은 일관되고 자세하다. 이 기록들은 미주리 주 북서 지역의 성도들이 받은 심한 박해의 시작을 담고 있다. 1838년 9월 2일에 조지 로빈슨은 그 지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는 폭정과 아주 흡사하다. 이는 무언가 악한 의도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미주리 주 북부 전체가 모두 소동과 혼란에 빠져 있다.” 그 일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미주리 주 파웨스트와 칼드웰 군의 다른 지역에 있는 후기 성도들은 자경단원들로부터 데이비스 군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미주리 주 일지: 1838년 9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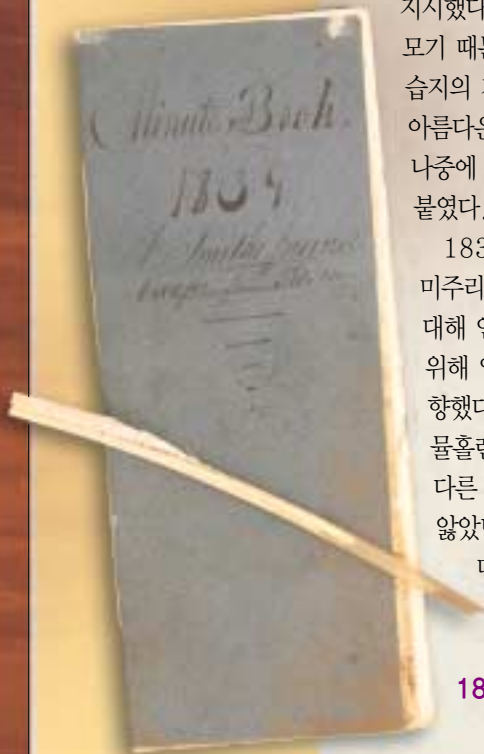
서기 제임스 몰홀랜드는 수년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집에서 하숙한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손으로 만든 소책자의 세 페이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두 번째 미주리 주 일지를 작성했다. 이 기록은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오직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메모 등등”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일지는 조셉 스미스의 행적에 대한 간략한 메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메모에는 종종 30분 간격으로 그의 이동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미주리 주에서의 대립이 점점 거세지는 동안 쓰여진 이 일지는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소재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승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제임스 몰홀랜드는 제일회장단의 서기였던 조지 로빈슨처럼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의도와 활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1838년 10월 5일자로 되어 있는 마지막 기록은 “그를 오후 내내 보지 못했다. 그가 집 밖으로 나간 것 같다.”라는 말로 끝맺는다. 실제로 조셉 스미스는 자경단원들에 의해 포위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미주리 주 디윗으로 갔었다.

첫 번째 일리노이 주 일지: 1839년

리버티 감옥에 겨울 내내 투옥된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인 후기 성도 수감자들에게 재판 장소 변경이

아래쪽: 선지자의 첫 번째
일리노이 주 일지는 15쪽
분량의 손으로 만든
“의사록”으로, 아래
사진에는 손으로 만든 복제
깃촉펜과 함께 나와 있다.



승인되었다. 주 정부의 공판을 피할 수 있도록, 간수들은 그들이 새로운 재판 장소로 가는 도중에 도망치도록 허락했다. 1839년 4월 22일에 그들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 일리노이 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일리노이 주 퀸시의 시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던, 미주리 주에서 온 성도들과 합류했다. 같은 날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 다시 일지 작성을 하도록 제임스 물홀랜드에게 지시했다. 1839년 4월부터 10월까지, 물홀랜드 형제는 “의사록”이라는 제목을 붙인 15쪽 분량의 손으로 만든 소책자에 선지자의 활동을 기록했다.

이 일지에는 다시 한번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선지자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는 일리노이 주 커머스 상류 지역의 땅을 구입하고 성도들에게 그곳으로 이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그 지역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때문에 역병이 돌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습지의 저지대에 배수 설비를 하여 커머스를 아름다운 도시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중에 그 도시에 나부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

1839년 10월 말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의 후기 성도들이 겪는 박해에 대해 연방 정부에 구제와 배상을 요청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를 떠나 워싱턴 디시로 향했다. 조셉이 떠나기 2주 전에 제임스 물홀랜드의 일지 작성은 중단되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아마도 말라리아를 앓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선지자가 떠나 있는 동안 사망했다.

두 번째 일리노이 주 일지:

1841년~1842년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몇 달 후 1841년 12월, 윌라드 리차즈 장로는 가장 길고 가장 일관성 있는 선지자의

생애에 관한 일지 작성을 시작했다. 이 일지와 계속 기록된 다음 일리노이 주 일지에는 1841년 12월 중순부터 1844년 6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할 때까지의 내용이 사실상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다. 리차즈 장로는 “주님의 율법의 책”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큰 장부에 이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은 “시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재산을 헌납하는… 모든 자에 관한 역사와 교회의 일반 기록을 작성하[라]는” (교리와 성약 85:1)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몇몇 계시의 사본이 89쪽 분량의 일지에 앞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수많은 기부 내역에 대한 기록 곳곳에서 이 계시의 사본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일지에는 선지자의 생애 동안 있었던 상호부조회의 창설과 나부 성전의 건축과 같은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조셉이 교회 회장, 나부 시장, 상점 주인, 재판관, 신문 편집인, 나부 군사령관, 그리고 다른 직책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이 일지에는 또한 계시, 재판 기록, 그리고 조셉의 아내 에머 및 다른 사람들과 나는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윌라드 리차즈가 그의 가족을 나부로 이사시키기 위해 메사추세츠로 떠난 때인 1842년 7월, 그는 이 일지를 윌리엄 클레이튼에게 넘겨 주었다. 엘리자 알 스노우와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서기의 정기적인 도움을 받아 클레이튼 형제는 이 일지의 나머지와 기부 기록을 작성했다. 1842년 12월 20일의 사건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세 번째 일리노이 주 일지: 1842년~1844년

이전 일지에서는 전체 페이지의 반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지만 윌라드 리차즈가 다시 서기로 일하면서, “조셉 스미스 회장의 일지”라는 제목이



위쪽: 세 번째 일리노이 주 일지는 윌라드 리차즈 장로가 서기로 활동하며 네 권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 보이는 책상과 문서 상자는 나무에 있던 스미스 가족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삽화: 1843년 4월 6일의 일지 기록은 나무의 교회 대회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Thursday, April 6, 1843
 The first day of the jubile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 special con-
 ference assembled on the platform of
 the temple on floor of the basement
 at 10 o'clock. The sun shone
 clearly & was very warm & pleasant.

붙여진 새로운 일지가 1842년 12월 21일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1,045쪽 분량의 네 권의 일지가 만들어졌다. 이 일지에는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이 살해당하기 바로 5일 전인 1844년 6월 22일까지의 내용이 거의 매일 기록되어 있다.

서기 윌라드 리차즈 특유의 문체를 볼 수 있는 이 일지는 조셉이라면 자신에 대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은 방법으로 선지자의 개성과 인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기록은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일화부터 조셉 스미스가 나무 법정에서 주관한 재판의 상세한 기록까지 그 범위가 넓다. 이 폭넓은 정보는 우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일부 기록은 그가 일지 작성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1843년 3월 4일에 선지자는 리차즈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역사가로서 그대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변의 사물, 날씨 등을 명명하거나 인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는 아니었지만, 조셉이 이 일지를 검토한 것은 그가 자신의 생애와 초기 교회의 사건들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신의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의 기록 작성에 대한 선지자의 노력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했지만, 결국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행적에 대한 정기적인 기록 작성에 성공했다. 그의 일지는 초기 교회 역사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

모든 일지의 인용문에서 철자와 구두법은 현대적으로 바꾸었다. 이 일지들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사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다.

주

1. 예를 들어, letter from Joseph Smith, Greenville, Indiana, to Emma Smith, Kirtland, Ohio, June 6, 1832, Chicago Historical Society, Chicago, Illinois; letter from Joseph Smith, Kirtland, Ohio, to William W. Phelps, Independence, Missouri, Nov. 27, 1832, in Joseph Smith Letterbook 1, pages 1-4,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Utah. 참조.
2. Noah Webster, ed.,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45), “scriptory”, 731쪽 참조.



지상의

내 부친에게 그것은 영광스러운 소식이었다. 즉, 오늘날 지상에도 선지자들이 계신다.

제이드 스왈츠버그

나는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오늘날 지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 성장하신 나의 아버지로이 스왈츠버그는 그렇지 않았다.

남 아프리카의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하신 아버지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 알고 계셨고, 그들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다. 아버지는 홍해를 가르는 모세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엘리야에 대해 들었을 때, 이들이 백성들을 위해 했던 일에 놀라워 하셨고 왜 오늘날에는 지상에 선지자들이 없는지 의아해 하셨다.

아버지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처음 들었던 때는 13세 때 가진 유대 성인식 바로 후였다. 당시 아버지는 유대인이었던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는 재혼한 후에 교회에 가입하셨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의 형인 마크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조셉 스미스와 첫번째 시현, 복음의 회복과 지상의 선지자들에 대해 말해 주었다. 아버지는 그의 형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 무언가 아주 옳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이미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이것은 영광스러운 소식이었다! 지상에 선지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형은 간증을 나눈 후에 아버지에게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대식으로, 일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방향으로 마주서서, 히브리어로만 기도했다고



선지자

한다. 아버지의 형은 후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즉 경전을 보이기 위해 무릎을 꿇고 팔을 뜨개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으로 개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선지자들에 대한 그 소식이 옳게 느껴졌고 기도한 후에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선교사들의 말을 즉시 들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곧 아버지와 그의 형은 교회 회원인 그들의 양조부모에게 보내져 함께 살게 되었다. 일요일마다 그 가족은 안식일 모임에 참석했지만, 아버지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에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형과 함께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남 아프리카에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을 때, 세미나리에도 참석했다. 거기서 그는 몰몬경에 대해 배웠다. 그가 처음으로 암기한 히브리어가 아닌 경전 구절은 니파이전서 3장 7절이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선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지런히 그를 방문했고, 얼마 후 그는 유대 회당에서의 모임뿐 아니라 성찬식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었을 때, 아버지는 선교사 토론을 듣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여 아버지는 1973년 성탄절에 침례 받으셨고 처음으로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게 되었다.

진리로 향해 가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에게 더 큰 안목을 갖게 했으며, 선지자들에 대한 그의 간증은 곧 내 간증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 내가 목에 걸고 있는 '다윗의 별' 목걸이는 내가 자랑스러워 하는 유대인의 유산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표시인 동시에 신앙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청소년기에 선지자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모세가 선지자였던 것처럼 고든 비 힙클리 회장님이 오늘날의 선지자이심을 알며, 그 사실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정말로 하늘이 열렸고,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고대에서처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

질문의 응답

“복음 안에서 굳건히 남기 위해 제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성 신이 여러분께 영적 진리에 대해 증거할 때 여러분의 간증은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삶에 성신을 불러오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효과적으로 경전을 공부한다. 매일 밤, 서둘러 경전을 읽기 위해 15분간 억지로 눈을 뜨고 있는 대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십시오.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경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신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성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한다. 여러분이 합당하다면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도록 속삭여 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참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위안을 주는 영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도 영을 지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경전을 공부하고 그에 대해 속고하겠다고 결심한다.

항상 성신을 지니기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작은 죄라도 겸손히 회개한다.

자신의 간증이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자주 간증한다.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고, 필요할 경우 진심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자신의 간증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은 구주와 조셉 스미스, 몰몬경에 대한 굳건한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갑니까?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반석, 즉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힐라맨서 5:12) 위에 간증을 키우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굳은 확신을 갖는다. 간증 모임에서든, 친구나 가족에게든, 또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든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간증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간증은 강화될 것이며 여러분은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굳건히 남아 있고 싶은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간증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간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레이맨인들은 간증을 얻고 주께로 돌이킨 후에야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 습니다.(앨마서 23:6) 경전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교리와 성약 20:32~34 참조) 간증의 발전이 늦고 돌이킴을 강화하는 과정이 더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신의 권능에 의지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저는 경전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협착하고 좁은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이해할 때 더욱더 강한 믿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더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에 더 순종하게 되며 복음에 충실해집니다.

비어트리스 시, 21세, 짐바브웨



인생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되다고 간증하는 다른

회원들의 모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지부 또는 와드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면서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지혜와 행복의 영원한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자신감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맥심 케이, 22세, 우크라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또는 개인 발전 기록부는 간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회 모임과 상호 향상 모임에 항상 참석하고 늘 간증을 나누십시오.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을 느끼게 되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슨 앤, 20세, 필리핀 루존



간증을 얻었을 때 경전 일지를 쓰세요. 영적 경험들을 기록하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얻은 교훈이나 느낌들을 적어 두세요. 그 순간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것이나 적으세요. 의심이 생기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기록해 둔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매건 제이, 17세, 미국 버지니아 주



저는 기도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 항상 감사함으로써 제 간증을 강화하고 사탄에 강하게 맞설 힘을 얻습니다. 저는 계명을 지킬 때 사탄 앞에서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복음 안에서 얻었던 모든 좋은 경험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간증은 커지고 악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제가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작은 식물을 보살피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강해지도록 보살피야 합니다.

바바라 엠, 16세, 브라질 상파울루

간증은 경험을 통해 서서히 강화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간증을 얻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기꺼이 봉사하고 계명을 지키며 기도와 금식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귀 기울인다면 간증이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간증을



“무엇이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퇴보를 거치지 않고 죄를 조금만 질 수 있는 중간 지대나 희미한 회색 지대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겸손한 기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닌 간증의 모닥불이 죄로 인해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영적인 간증의 불꽃”, 리아호나, 1993년 1월호, 34쪽.

강화해 주는 영감의 순간들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알베르토 아쿠이노 장로, 21세, 과테말라 시티 남 선교부



가끔 의심하기도 했지만 기도의 권능과 성신의 권능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의심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 기울이시고 도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린 에스, 17세, 미국 유타 주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 질문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의미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보내 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사진과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여러분의 사진 인쇄에 대한 부모님의 허가서 포함)

Liahona, Questions and Answers 1/08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대답은 2008년 1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가장 소중한 선물

콘수엘로 코네사 레오네

성 탄절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과 카드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던 적이 있다. 그 동안 성탄절마다 받았던 모든 선물들 중에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선물이 있었는가? 나는 곧 1963년 12월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학기가 끝나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 읽을 게 있나 찾아보았지만 우리 집 서재에는 내가 이미 다 읽은 책들만 있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끔 나에게 책을 빌려 주었던 한 이웃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번에 그녀는 두 명의 외국인 젊은이들이 주고 간 책을 빌려 주겠다고 했다.

“이 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네요. 내용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라고 이웃은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였다고 덧붙였다. 선교사라고? 책에 대한 내 관심은 금새 사라졌다. 당시 나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일단 책을 가져오기는 했다.

작별 인사를 건네자 이웃은 이렇게 덧붙였다. “책 안을 보면 선교사들이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책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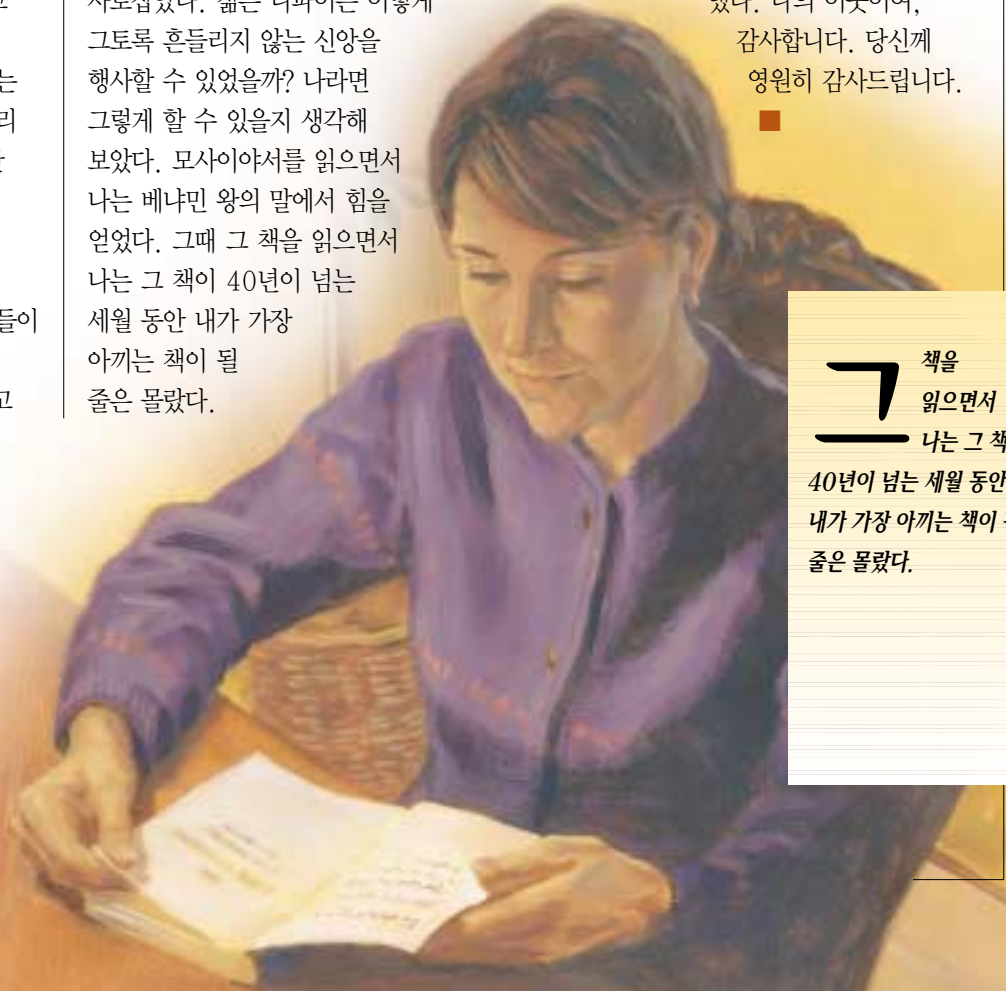
비 오는 그 토요일, 아무 계획도 없었던 나는 그 “흥미로운” 책을 읽기로 했다. 책을 펼치자 선교사들이 적어 둔 내용이 나왔다. 나는 책을 침대 위에 올려 놓고 무릎을 꿇은 다음,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 방식대로 기도를 드렸다.

책을 읽기 시작하자 그 내용이 나를 사로잡았다. 젊은 니파이는 어떻게 그토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모사이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베냐민 왕의 말에서 힘을 얻었다.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 책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가장 아끼는 책이 될 줄은 몰랐다.

그 세월 동안 이 책의 내용은 내게 많은 지지와 위안과 힘이 되었고, 나는 내가 침례와 확인을 받은 아르헨티나의 작은 투쿠만 지부에서 말씀과 공과를 하며 나는 여러 중요한 통찰력들을 얻게 되었다. 2년 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나도 구도자들에게 동반자와 내가 준 모델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라고 제안하는 내용을 종이에 적었다.

그로부터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내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과 그 선물을 준 이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어렵פות한 그녀의 얼굴과 마리아라는 이름을 겨우 기억해 냈다. 나의 이웃이여, 감사합니다. 당신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 책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가장 아끼는 책이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의 성탄절 생쥐

베티 르바론 모스테르

19 50년대와 1960년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성탄절 전통이 없었다. 양말을 빼고 말이다. 우리는 그 성탄절 양말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각자 자녀를 낳은 후에도 그 전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을 놀라게 해줄 선물을 사서 수십 개의 성탄절 양말을 채우는 일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무리한 일이 되었다. 특히 심한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어머니께는 더더욱 무리였다.

결국 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자진했다. 성탄절 이야기 연극을 하고 양말을 열어 보며 친척과 매년 함께하는 가정의 밤과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의 바쁜 생활로 나는 무척 지쳐 있었다. 모두들 내가 신경 써서 준비한 킹엄(역주: 줄 무늬 또는 바둑판 무늬의 평직 면포)으로 된 성탄절 양말에서 선물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약간의 자기연민에 빠져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내 양말은 내가 그 안에 넣어 둔 막대사탕과 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내용물을 털어내면서 나는 호두와 개암으로 만든, 볼품없는 작은 생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한쪽 귀는 다른 쪽보다 훨씬 컸고 수염은 구부러져 있었다. 꼬리는 너무 짧았고,

트리에 걸기 위한 고리마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누가 유치원에서 만들었을 법한 것을 내 양말에 넣은 것일까?

고개를 돌려 어머니가 방 저편에서 휠체어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굵고 뒤틀린 손가락으로 어머니는 내게 오라고 손짓하셨다.

“성탄절 양말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 상호부조회에서 자매들이 이런 작은 생쥐들을 만들었는데, 어찌나 귀엽던지.”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 나갔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한 마리만 만들었다. 생각처럼 잘되진 않았지만, 너라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단다.”

나는 손 안의 생쥐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 나는 그 쥐가 좋았다. 사실상 그 작고 볼품없는 생쥐가 그 해 성탄절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얇은 종이에 싸인, 뒤틀어진 손가락으로 만든 기형의 생쥐를 꺼내 조심스레 트리에 걸어 왔다.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불편하신 몸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성탄절 생쥐는 내게 두 가지의 깊은 진리를 상기시켜 준다.

첫째는 내가 생쥐의 비뚤어진 귀를 눈감아 주고, 그 생쥐를 만드는 데 들어갔던 사랑과 희생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을 만큼 어머니께서는 나를 존중하셨다는 점이다. 둘째는 불완전한 인간인 내가 작고 보잘것없는 생쥐 한 마리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을 눈감아 주시고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선물은 그냥 좋은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잊지 못할 성탄절

제리 오 톨슨

아 내와 내가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다. 우리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고, 전형적인 학생 신분의 부부들처럼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졸업은 아직 몇 년 후의 일이었으며, 우리는 성탄절을 최대한 잘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시간제 근무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인 리사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의 생활은 빡빡했지만 행복했다.

성탄절 몇 달 전, 나는 최근 지명 받은 가정 복음 교육 대상 가족들을 아직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어려움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었던 한 가족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두 명의 자녀가 사고로 죽었고, 그 사고로 아버지는 아직 회복 중이었으며, 어머니는 신체 장애를 일으킨 병을 앓게 되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긍정적인 태도와 영을 지니고 있었고, 계명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12월 가정 복음 교육을 하면서 나는 그 가족에게 성탄절 트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자녀들에게 생각이 미치자 우리는 슬피졌다. 그 가족의 육체적, 영적,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있던 아내와 나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

우리는 성탄절 트리를 사려고 모아 뒀던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나무를 사서 포장한 다음 성탄절 이브에 그 가족의 집 앞에 아무도 모르게 두고 오기로 했다. 다행히 나무를 두러 갔을 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 가족이 집에 돌아와 나무를 발견하고 느낄 기쁨을 생각하며 즐거워했다. 이 작은 희생으로

우리는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화평과 기쁨의 영을 얻었다.

우리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물을 발견했다. 아름답게 장식된 성탄절 트리였다. 아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에게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은 이 사랑의 선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후에 우리는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바로 우리가 트리를 선물했던 그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련 속에서도

우 리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가족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했다. 그 해 우리의 마음은 참된 성탄절 정신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나요?

캐롤 시 워츠

떠 소 나는 성탄 절기와 어울리는 음악과 활동,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 가족이 새로운 마을로 이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우리가 그때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곳이 불편했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런 느낌들을 남편 립에게 토로했다. 우리는 결혼 후 몇 번 이사했고, 남편은 내가 불안감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립은 내게 물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물론 알지.”

“하지만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다. 립은 내게 나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할 것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커다란 식료품 봉투만 문 앞에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권유했다. 그날 밤, 나는 그렇게 했다. 며칠 후 나는 식료품을 사러 나갔다. 늘 사는 식품들 외에 다진 쇠고기와 구이용 쇠고기를 살 생각이었다. 그러나 곧 나는 고기를 살 만한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생기기까지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다른 마을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 가기 위해 자동차에 기름도 넣어야 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우리 상황에 대해 기도했다.

다음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커다란 식료품 봉투만 있었다. 봉투를 들어올리려고 몸을 굽히면서 접힌 봉투 윗부분에 20달러짜리 지폐가 있는 것을 보았다. 봉투 앞에는 크레용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에는 냉동된 다진 쇠고기 몇 팩과 스테이크용 고기 두 팩이 들어 있었다. 나는 정말 놀랐다. 나는 다음 급여일까지 쓸 돈이 없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조차 말한 적이 없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고기뿐 아니라 정확한 자동차 연료비까지 알 수 있을 만큼 영에 민감할 수 있었을까? 금식 간증 모임에서 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 경험은 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으며, 내게 그러한 사실을 보여 주심으로써 내가 그것을 알도록 해 주셨다. 그때 이후로 나는 성신의 속삭임을 듣는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한다. ■

신병

헨리 라스무센

나는 남편의 회고록에서 그가 어떻게 교회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50년도 더 된 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었다.

“1951년, 20세였던 나는 [덴마크에 있는] 크론보르그 성의 사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성탄절 밤에 나는 성을 둘러싼 독에서 보초를 섰다. 잠시 멈추어 별을 바라보던 나는 그 순간 하늘과 땅에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믿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의 부모님은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우리는 침례식, 안수례,

결혼식, 장례식이 있을 때에만 교회에 참석했다.

“몇 개월 후 상사로 진급했고 나에게도 병력이 배치되었다. 44명의 신병으로 구성된 병력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43명, 그리고 한 명이었다. 이 한 명은 나머지 신병과는 매우 달랐다. 내가 그에게 무엇이 그를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보이게 하는지 묻자 그는 그날 저녁 내 방에 와서 말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닷새 동안 매일 저녁 내 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말해 주었다. 여섯 번째 날인 일요일에 나는 교회에 갔다. 그렇게 해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나는 교회에 완전히 열중하게 되었다. 나는 조금씩 교회 회원들과 친해졌다. 나는 그 신병이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교회가 참되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참으로 멋진 날이었다.”

나는 1998년에 사망한 나의 남편 올라가 개인 역사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남편이 처음으로 느꼈던 오래 전의 그 성탄절 밤, 그리고 그 신병과의 대화는 우리가 서로 만나 성전에서 인봉 받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었으며 다섯 명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 손녀들을 갖게 해주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 나는 수년 전 덴마크에서의 그 성탄절 밤과 그 신병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

유용한 수업 도구

청녀 회장으로서 나는 *리아호나* 기사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특히 포스터는 청소년들이 복음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돕는 데 유용하다. *리아호나*에 담긴 말씀과 이야기들은 비록 다른 문화, 인종, 또는 성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라도

간증과 참된 복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의 실화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을 활용한다.

제시카 모레이라 데 마시야스, 에콰도르

리아호나가 있다는 것

내가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 어느 토요일에 나는 가족과 함께 바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이 내게 멈추라고 속삭였다. 가족은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나는 어떤 부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 기도했고, *리아호나*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메시지를 나누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도착했을 때 나는 영원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훗날 그 남편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투는 중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했다. 그 순간 그 부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가져간 메시지였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아호나*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리아호나*를 집에 비치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우리 집에 항상 *리아호나*가 있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리아호나*를 읽고 그 안에 있는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할 때 영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마르시알 에프, 브라질 리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리아호나*는 내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입을 때마다 이 잡지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도록 도와 준다. 이 잡지는 시련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주고, 주위의 모든 상황이 어두워 보일 때 희망을 주며, 고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빛을 가져다준다. 또한 가정의 밤을 준비할 때면 남편과 내게 훌륭한 도구가 되어 준다. 메시지와 이야기들은 모두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힘을 얻게 된다. 나는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이 잡지를 통해 내가 그것을 알도록 해주신다.

베르나베트 산토 도밍고, 필리핀

선한 사마리아인

내가 침례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회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리아호나* (1999~2000) 전부를 내게 주었고, 그때 이후로 나는 정기 구독을 해 왔다. 나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리아호나*를 선물한다.

나는 존 더블류 웰치의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2007년

2월호) 기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기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연민, 봉사라는 것을 배웠다.

지날바 페드로 다 실바, 브라질

주님의 사업은 전진한다

내게는 두 가지 부름이 있다. 그것은 지부 선교사와 청녀 조직에서의 제1보좌이다. *리아호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과와 활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비회원 친구들에게 *리아호나*를 선물했고, 친구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기뻐했다. 나는 주님의 사업이 모든 나라와 족속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타샤 바벤코, 우크라이나



다음 호 예고

1월부터 교회의 성인 회원들은 상호부조회 및 멜기세덱 신권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호

*리아호나*에 실릴 기사는 선지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의 가르침을 모은 권위 있는 책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친구들



구주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절기에 우리는 아주 오래 전 겸손한 목자들이 받았던 천사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0~14)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명을 지키고 구주처럼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삶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과 평안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요한복음 10:11

왕: “그리고 주가 이르기를,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 나는 메시아, 시온의 왕...이니.”- 모세서 7:53

주: 리아호나에서 이 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 마태복음 2:1~2

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요한복음 1:29



선물: “그런즉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도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이터서 12:11



가장 위대한 선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11)

엘리자베스 릭스



선물 받는 걸 좋아하나요? 모두가 좋아하죠. 선물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나요? 여러분이 주는 선물이 화려하거나 값비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고, 아빠나 엄마가 식사 준비하실 때 도와드리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선물에 대해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를 위한 모범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또 다른 훌륭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참으로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면,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6:13)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즉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활동

맞은편 페이지의 각 장식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이 장식품들이 어떻게 상징물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전 구절을 읽는다. 장식품을 마분지에 붙인 후 잘라낸다. 경전 구절을 잘라낸다. 장식품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각 경전 구절을 해당 장식품 뒤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인다. 장식품 윗부분에 리본을 달아 가족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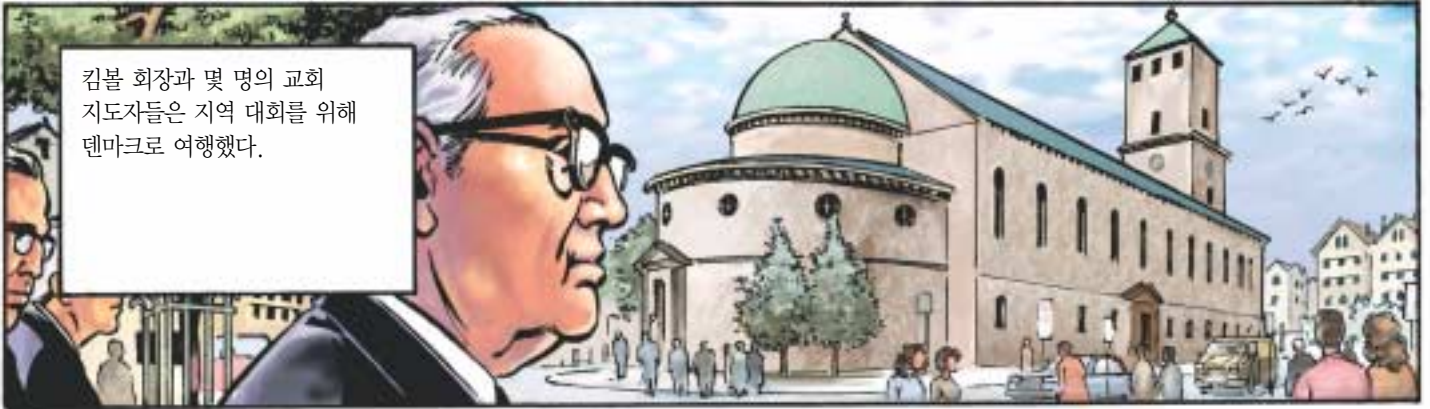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깃발, 하트, 웃는 얼굴 모양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질문한다.(국가, 사랑, 행복) 각각이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설명한다. 고대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상징물을 사용했다. 양 그림을 보여 준다. (초등회 2 교재, 123쪽)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물임을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양과 같은지 토론한다. 다음 경전 구절을 나누어 준다. 창세기 22:3~8; 출애굽기 12:21~28; 이사야 53:7; 요한복음 1:29; 니파이전서 12:6. 경전 구절을 읽은 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내용이 각 구절에 나와 있는지 이야기한다. 상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고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음을 알 수 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간증한다.

2. 두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 그림 패킷 238(그리스도의 재림)과 239(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어린이들에게 두 그림에서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라고 한다. 그림을 들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뒷면에 나와 있는 제목과 요약된 내용을 읽어 보라고 한다. 한 그림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이며 다른 그림은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 그림이 비슷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을 찾아 보라고 한다. 지구분을 보여 준다. 이 구절에서 “... 하늘로 올려지신”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의 그림을 지구본에서 멀어지게 한다. “... 그대로 오시리라”를 읽을 때에는 재림의 그림을 지구본에 가까이 댄다. 초등회 모임 일주일 전에 몇몇 어린이들에게 올해 배운 것 중 재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다. 참여자들의 순서 중간중간에 올해 배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들에 담겨 있는 원리에 대해 복습한다.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간증한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신권 열쇠를 지님



김볼 회장과 몇 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대회를 위해 덴마크로 여행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투어발슨(역주: 덴마크의 조각가)의 유명한 조각품인 그리스도 상을 보러 한 성당에 들렀다.

정말 아름답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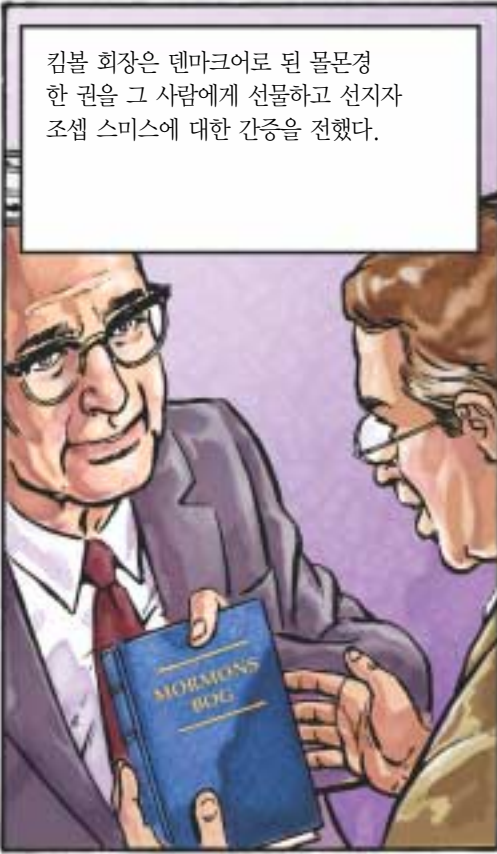
그 성당에는 큰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는 베드로 상이 있었다.

김볼 회장은 옆에 있던 관리인에게 설명했다.

베드로가 교회 회장으로서 지냈던 신권 권세의 열쇠는 이제 이 경륜의 시대의 교회 회장인 제게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돌로 된 사도들의 조각상 가까이 있지만 오늘은 살아 있는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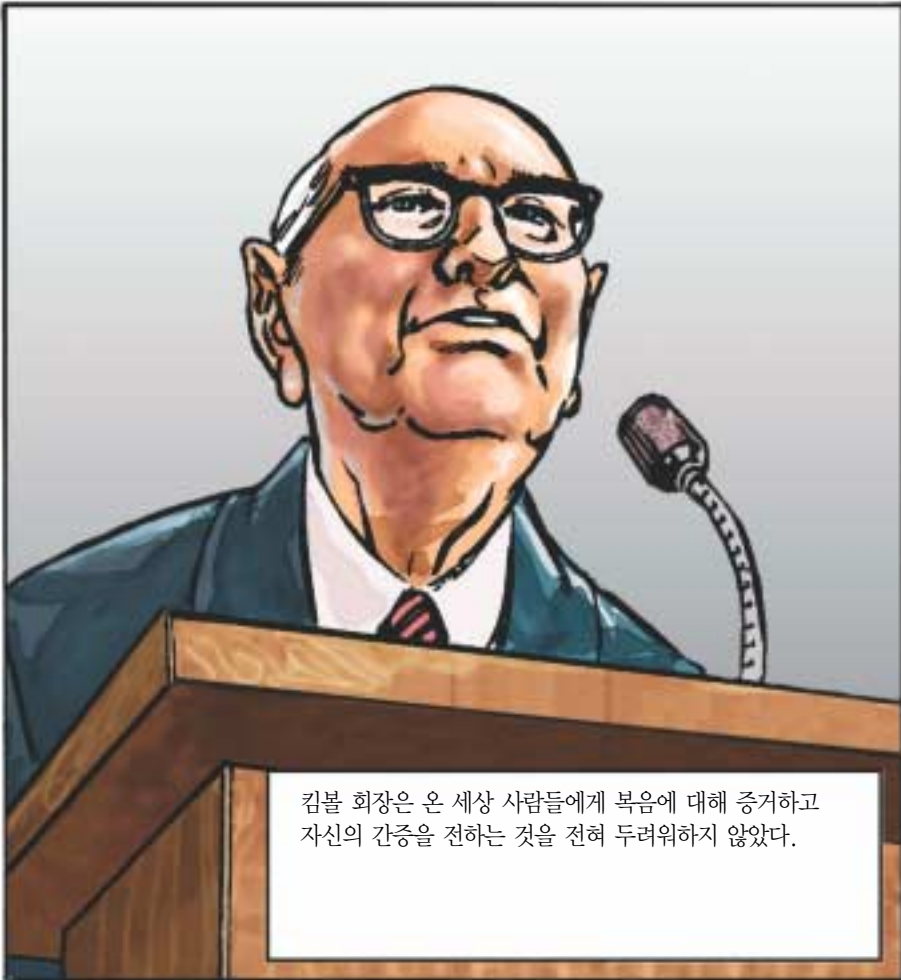


김볼 회장은 덴마크어로 된 물문경한 권을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그 남자는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했습니다.



김볼 회장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인물과 해설

팻 그레이엄

이 짝짓기 게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흥미로운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경전에 나와 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게임 방법: 두꺼운 종이에 다음의 직사각형 카드들을 풀로 붙여 올려낸다. 이 직사각형 카드들을 그림 또는 글씨가 안

보이게 펼쳐 놓고 게임을 시작한다. 첫 번째 사람이 두 개의 직사각형 카드를 뒤집는다. 인물과 해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사각형 카드를 다시 뒤집어 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 차례를 넘긴다. 인물과 해설이 일치하면 그 사람은 해설을 큰 소리로 읽고 카드들을 가진 후 한 번 더 뒤집는다. 모든 직사각형 카드들이 일치될 때까지 게임을 한다. 가장 많은 짝을 찾은 사람이 이긴다.

	<p>베들레헬의 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표적은 이스라엘과 미 대륙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 2:1~2, 7, 9 참조)</p>
	<p>예수님 경전은 예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메시아, 구속주, 구주, 여호와, 장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빛,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그 외에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가? (경전 안내서, "예수 그리스도", 206쪽 참조)</p>
	<p>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가 다윗 왕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시켰다.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¹</p>
	<p>천사들 천사들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마태복음 1:20; 누가복음 1:26~27; 2:8~9 참조)</p>



마구간
 이 당시의 여관들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동물들을 위한 안뜰이 있었다. 안뜰을 둘러싼 방들이 다 찻으므로 요셉은 그 가운데 안뜰에서 해산을 하는 마리아를 보살폈을 것이다.²



구유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부드러운 밀짚으로 채워진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혔을 것이다. (누가복음 2:7 참조) 많은 예술가들이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구유를 보여 주었지만 구유는 돌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³



목자들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인도하고 먹이며 보호하는 일이다. 목자들은 종종 돌로 둘러싸인 양 우리 입구에서 잠을 잤다.⁴ 주님의 사업을 돕는 사람들은 목자와 같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다. (요한복음 21:15~17; 교리와 성약 112:14 참조)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고결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목수였다. 그는 예수님이 성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⁵



박사들
 동방박사들이 구주를 경배하려 왔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마구간이 아닌 어느 집으로 찾아왔다.⁶ 그들은 헤롯에게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하지 말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았다. (마태복음 2:12 참조)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86쪽 참조
2. 리셀 엠 벨슨, "Christ the Savior Is Born", *New Era*, 2006년 12월, 4쪽 참조
3. Madeleine S. and J. Lane Miller, *Harper's Bible Dictionary*, 8 개정판. (1973), "구유", 416쪽 참조
4. *Harper's Bible Dictionary*, "목자", 675쪽 참조
5. *Harper's Bible Dictionary*, "요셉", 351쪽 참조
6. 예수 그리스도, 97~99쪽 참조

주: 리아호나에서 이 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www.lds.org에서 인쇄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성탄절 손님

“내가 ...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4)

그웬 에스 존스
실화에 근거함

“**엄**마, 한 번만 더 퓨리먼 자매님을 초대해 볼게요.” 하고 그레그가 간청했다.
그레그 뒤로는 그의 남동생들의

걱정스런 얼굴들이 옷을 거는 나무못들처럼
빠죽이 나와 있었다.

“성탄절 이브에 자매님이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라고 레인이 말하자 스코트와 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퓨리먼
자매님을 초대하려 했었니. 자매님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희들이 좋다면 성탄절 이브에는
초대해도 좋아.” 엄마가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내 문이 다시 활짝 열리며 그레그가 외쳤다. “기적이에요.
엄마! 자매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다음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레그는 퓨리먼 자매님이
나쁜 날씨에는 우편함까지 나가시는 것도 피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자매님이 내일 오실까요?”라고 그레그가
물었다. 어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다.

성탄절 이브의 저녁 식사 후에 레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 캐럴린 숙모와 세 자녀들이 도착했다. “지금 퓨리먼

자매님 댁에 갈까요?”라고 레인이 물었다.

“좋아, 자매님이 길을 건너실 때 도와드리는 걸 잊지 말거라.
길이 미끄러워.”라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게요, 아빠.” 스코트가 말했다.

“만약 자매님이 오시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더라도
기분 상하게 해드리면 안 돼.”라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레그는 “안 그럴게요, 아빠”라고 말했고,
아이들과 함께 눈 덮인 풍경 속으로
뛰어나갔다. 눈은 그쳤고 날은 길이 보일
정도로 아직 밝았다.

아이들이 퓨리먼 자매님을 도와 문 안으로
들어설 무렵, 여덟 살짜리 아담은 베카와 질이
가족 성탄극 의상을 입은 일을 도와 주고 있었다.

퓨리먼 자매님의 뺨은 추위로 빨갛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가족은 귀한 손님이 실제로 와 준 것에
대해 그리 놀라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다.

아빠는 퓨리먼 자매님이 환영 받는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셨고
엄마 옆자리에 앉으시도록 도우셨다. 그레그는 재빨리 외투를
벗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개회 기도 후에 그레그는 성탄절
찬송가를 부드럽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스코트는 동생들이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하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실내복을 입은 세 살짜리 베카는 댄이 요셉을
연기하는 동안 경건하게 마리아 역할을 했다. 질은 머리에 금색
화관을 쓴 채 천사 역할을 했고 사촌들은 아기 왕을 경배하러







온 목자들과 동방박사 역할을 했다.

곧 “고요한 밤”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서로 껴안고, 웃고, 칭찬하는 가운데 성스러운 이야기의 경건한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들은 엄마의 따뜻한 계피 빵을 먹으며 그 밤을 마무리했다. 곧 그 날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다.

아이들은 다시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병어리 장갑을 낀 뒤, 퓨리먼 자매님을 호위하며 길을 건넜다. 반짝이는 현관 불빛이 어둠 속을 내려 비춰 추위에도 불구하고 눈 덮힌 시골 길을 걷는 그들의 발걸음을 즐겁게 했다.

“퓨리먼 자매님, 안녕히 주무세요.” 집을 향해 돌아서면서 그레그가 소리쳤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던 퓨리먼 자매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얘들아, 고마웠다.”

그레그는 집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직전에 어깨 너머로 훑듯 보았다. 퓨리먼 자매님은 아직도 현관에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고, 가족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 해 12월에 그레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퓨리먼 자매님께서 편지가 왔어요!”라고 소리치고 나서 그레그는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내 읽었다.

“올 성탄절에 네 가족이 보고 싶을 게다. 내가 너희 집에서

보낸 성탄절 이브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네게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해야 겠구나.”

“너희가 길 건너 그 집으로 이사오기 몇 년 전에 꿈을 하나 꾸었던다. 난 너희 집의 모든 불이 켜져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지. 꿈에서 깨었을 때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래 그리 자주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좋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단다.”

“여러 달이 지나면서, 나는 그 꿈을 모두 잊어버렸어. 그런데 성탄절 이브에 너희가 나를 초대했고 난 너희 가족의 성탄 축하연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간 후에 난 너희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에서 있었어. 바로 그 때, 너희 집이 불빛으로 반짝이는 걸 보았단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내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어. 난 그때와 똑 같은 평화로움을 느꼈지.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감사하는지 알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퓨리먼 자매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레그는 그날 밤 느꼈던 따뜻함을 기억했다. 그레그는 가족과 퓨리먼 자매님이 함께 성탄 축하연을 가져서 자매님께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



평화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 “감사의 계절”,
리아호나, 1997년 12월호, 6쪽.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용 전구 이상의 것입니다. ... 그것은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님은 이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아 계신 선지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두려움을 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망대 위에 있는 파수꾼인 사도와 선견자, 계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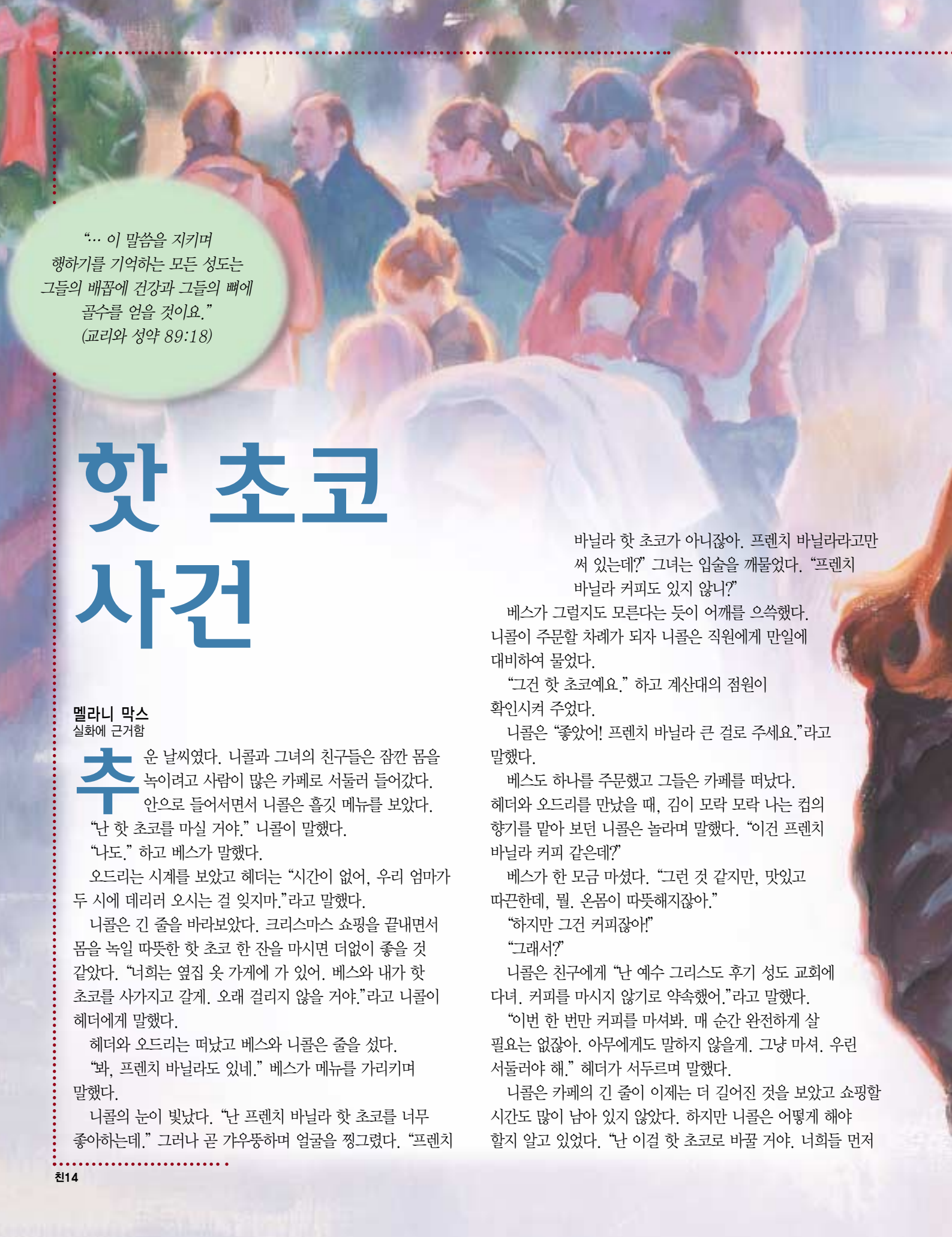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기 위해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국의 모든 열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고 교화됩니다.

창조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일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 주시는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4쪽;
“선지자의 음성으로 축복받는 세계적인 교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2쪽.



“...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긴장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교리와 성약 89:18)

핫 초코 사건

멜라니 맥스
실화에 근거함

추운 날씨였다. 니콜과 그녀의 친구들은 잠깐 몸을 녹이려고 사람이 많은 카페로 서둘러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니콜은 흥긋 메뉴를 보았다. “난 핫 초코를 마실 거야.” 니콜이 말했다. “나도.” 하고 베스가 말했다. 오드리는 시계를 보았고 헤더는 “시간이 없어, 우리 엄마가 두 시에 데리러 오시는 걸 잊지마.”라고 말했다. 니콜은 긴 줄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끝내면서 몸을 녹일 따뜻한 핫 초코 한 잔을 마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았다. “너희는 옆집 옷 가게에 가 있어. 베스와 내가 핫 초코를 사가지고 갈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니콜이 헤더에게 말했다. 헤더와 오드리는 떠났고 베스와 니콜은 줄을 섰다. “봐, 프렌치 바닐라도 있네.” 베스가 메뉴를 가리키며 말했다. 니콜의 눈이 빛났다. “난 프렌치 바닐라 핫 초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곧 가우똥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프렌치

바닐라 핫 초코가 아니잖아. 프렌치 바닐라라고만 써 있는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프렌치 바닐라 커피도 있지 않니?”

베스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니콜이 주문할 차례가 되자 니콜은 직원에게 만일에 대비하여 물었다.

“그건 핫 초코예요.” 하고 계산대의 점원이 확인시켜 주었다.

니콜은 “좋았어! 프렌치 바닐라 큰 걸로 주세요.”라고 말했다.

베스도 하나를 주문했고 그들은 카페를 떠났다. 헤더와 오드리를 만났을 때, 김이 모락 모락 나는 컵의 향기를 맡아 보던 니콜은 놀라며 말했다. “이건 프렌치 바닐라 커피 같은데?”

베스가 한 모금 마셨다. “그런 것 같지만, 맛있고 따끈한데, 뭘. 온몸이 따뜻해지잖아.”

“하지만 그건 커피잖아!”

“그래서?”

니콜은 친구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녀.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약속했어.”라고 말했다.

“이번 한 번만 커피를 마셔봐. 매 순간 완전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그냥 마셔. 우린 서둘러야 해.” 헤더가 서두르며 말했다.

니콜은 카페의 긴 줄이 이제는 더 길어진 것을 보았고 쇼핑할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니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난 이걸 핫 초코로 바꿀 거야. 너희들 먼저

가. 장난감 가게에서 만나자.”

니콜은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드리가 니콜을 붙잡고 “내가 함께 갈게.”라고 말했다. 오드리도 후기 성도였다.

소녀들은 줄을 섰다. 오드리는 “네가 커피를 마시지 않아 기뻐.”라고 말했다.

니콜은 웃으며 “나도.”라고 말했다.

니콜이 그 음료가 커피임을 계산대의 점원에게 설명하자 그녀는 사과하며 핫 초코로 바꿔 주었다. 그런 후, 니콜과

오드리는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추위 속을 서둘러 걸어 갔다. 니콜은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핫 초코 때문만은 아니었다. 니콜은 옳은 일을 선택했음을 알았다. 친구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다. 니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



“세속적인 무리와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 남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 “중독을 원하는가 자유를 원하는가”,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8, 9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때 지상에 사셨습니다. 나에게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11)

백만 명의 선교사, 천삼백만 명의 회원

© 2007년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브라질에서 온 살단하 장로(왼쪽)는 전도유망한 축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교회 역사상 백만 명에 이른 선교사 중 한 명으로 봉사하고 있다.

솔 트레이크 성전과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이 교회를 상징하듯이, 선교사들 역시 교회를 상징한다. 이 젊은이들은 반듯한 외모와 단정한 복장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가가호호를 하며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교회 초창기 이래 전 세계에 퍼져 왔고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에 이르렀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프로보 소재 선교사 훈련원에서 최근에 가진 신임 선교부 회장 훈련 세미나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선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더 많은 수의, 더 유능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이래 백만 명의 회원들이 선교사로 봉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118명의 신임 선교부 회장들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지

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젊은 남녀들, 연로한 자매들과 부부들이 145개 국가와 자치 구역에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자비 또는 가족의 지원을 받아 자원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벨라드 장로는 이러한 이정표가 말해 주듯 마치 모자이크와도 같은 이 선교사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벨라드 장로는 백만 명의 선교사들 개개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페루의 한 젊은 자매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햄버거를 팔아 자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인도 출신의 어느 젊은 장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어느 은퇴한 부부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떠나 서부 아프리카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물 파

는 일을 도왔습니다. 선교사들은 배정받은 지역에서 봉사를 하게 되며,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 봉사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원해서 나온 선교사들이 수행하는 사업들도 선교사 자신들만큼이나 다양하다. 하루 일과만 보더라도, 선교사들은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돕거나 계보를 탐구하는 것을 돕는 일에서부터 공보 업무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בל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 드리건대 저는 선교사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들과 특히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주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여건에 관계없이 그들을 복돋아 주고 축복하기 위해 맡은 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בל라드 장로는 그가 선교사 정신의 귀감이 된다고 말한 선교사들과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들 중에는 나이지리아 선교 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케냐 출신의 아프리카 원주민 부부, 솔트레이크시티의 중심가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국과 멕시코 출신의 젊은 자매 선교사 한 쌍, 여러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세계의 도처를 찾아가는 유타 주 출신의 연로한 인도주의 부부 선교사,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한 브라질과 아이다호

주 출신의 젊은 장로 한 쌍이 있었다.

사무엘 펠라킴과 브랜던 솔버그라는 두 젊은이는 모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학업을 미루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앞으로 2년 동안 텔레비전이나 데이트 및 기타 십대들의 활동에서 벗어나 살기로 했다. 솔버그 장로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게는 나눌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다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펠라킴 장로도 이에 동의한다. “선교사로 봉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만든 것이 바로 복음임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온 스물두 살의 조은별 자매의 부모를 교회로 인도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남다른 차이점이었다. 조 자매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봉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항상 궁금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게이즐럼 무노즈 자매도 본국인 멕시코에서 가족 중 몇 명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 복음은 제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가르치는 사

람들의 삶도 이 복음으로 인해 영원히 변화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무노즈 자매는 말한다.

기자회견은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였던 사무엘 스미스의 실제 크기의 동상 옆에서 열렸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조직하던 1830년에는 겨우 16명의 선교사만이 부름을 받았다. 177년이 지난 지금, 53,000명에 이르는 선교사(젊은 남녀, 연로한 자매, 연로한 부부)들이 전 세계에 걸쳐 약 350개의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과 감동을 주고 있다. 히클리 회장은 또한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교회의 회원 수가 이제 1,300만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보다는 미국 외의 회원 수가 계속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교회 회원들이 전 세계에 깊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소책자 출간

제 일회장단은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제목의 새로운 소책자를 출간했다.

제일회장단은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대할 때 소책자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온정과 사랑의 영으로 권고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소책자는 개인의 정체성과 잠재력, 행복의 계획, 극기, 선으로 삶을 채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동성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여진 소책자이다.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감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27개국어로 번역되어 스테이크, 지부 및 선교부 지도자들을 통해 배부된다. 해당 언어는 한국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미국식 수화, 사모아어, 세부아노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영어 접자,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피지어, 필란드어, 헝가리어이다.

소책자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배부 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 소책자는 위의 언어들로 교회의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

세계 곳곳에서 착공되고 준공된 성전들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이 수리를 마치고 다시 운영되며,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성전이 착공되었다. 브라질 마나우스에는 새로운 성전 건립이 발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성전은 124개이며, 12개의 성전이 공사 중이거나 건축이 발표되었다.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

새롭게 보수된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은 몇 달간의 준비 작업을 거친 후 11월에 재헌납되었다.

일반인 공개는 2007년 9월 29일에 시작되어 10월 2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되었다. 일반인 공개가 끝난 후, 2007년 11월 4일에는 해당 성전 구역에 거주하는 후기 성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두 번의 재헌납식을 가졌다. 문화 축제는 2007년 11월 3일에 열렸다.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은 1983년 8월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처음 헌납했으며, 통가와 태평양 라인 제도의 후기 성도들이 이용하고 있다. 통가에는 현재 약 52,400명의 회원들이 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의 기공식이 2007년 6월 23일 토요일에 거행되었다.

기공식의 감리는 동유럽 지역 회장인 폴 비 파이프 장로가 맡았고, 사회는 동유럽 지역 칠십인인 알렉산더 엔 만조스 장로가 맡았다.

이 성전은 우크라이나에 건립된 첫 번째 성전이며 1998년 7월에 처음 발표되었다. 1992년 이래로, 우크라이나의 후기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편도 30시간을 여행해야 했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9,9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고 하나의 스테이크와 다섯 개의 지방부가 있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 기공식이 2007년 6월 9일에 열렸고, 당시 중미 지역 회장인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가 감리했다.

현재, 온두라스 회원들이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에 참석하려면 약 12시간을 여행해야 한다. 온두라스에는 116,4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다.

이 성전은 온두라스의 첫 번째 성전이며,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코스타리카 산호세 성전에 이어 중미에서는 네 번째로 운영되는 성전이 될 것이다. 파나마시티 성전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 또한 과테말라 케살테낭고에 성전 건립이 발표되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성전

교회는 2007년 8월 4일 토요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성전의 기공식을 가졌다. 칠십인 회장단의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가 기공식을 감리했다.

2006년 6월 2일 발표된 이 성전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첫 번째 성전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28,4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고, 여덟 개의 스테이크



2007년 8월 4일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성전의 기공식이 있었다.

교회가 전 세계 재난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다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 홍수, 지진, 토네이도, 허리케인 및 기타 재난으로 피해를 겪는다.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재빠른 대처가 종종 삶과 죽음의 차이를 가져온다.

교회는 식품, 의복, 의료품, 구호 제품 등을 꾸준히 기부 받아 모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신속한 수송을 위해 미리 주요 지역에 쌓아둔다. 이렇게 준비해둬으로써 교회는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제 구호 기관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

는 위급한 상황인 경우 우리 교회에 식품과 물품들을 의지해 왔다. 교회는 물품을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도 기금과 자원 봉사자들을 조달한다. 자원 봉사자들은 종종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는 큰 역할을 한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 교회는 54,905톤(50,000 미터 톤)의 식품과 107,061톤(96,000 미터 톤)의 기타 보급품을 150개 이상의 국가로 보냈다. 2006년 교회는 레바논의 분쟁, 인도네시아의 지진, 부룬디, 수단, 우간다의 피

크와 한 개의 지방부가 있다. 캐나다 전체에는 모두 166,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고,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 앨버타 애드먼턴 성전, 노바스코샤 헬리팩스 성전, 퀘벡 몬트리올 성전, 서스캐처원 리자이나 성전, 온타리오 토론토 성전 등 여섯 개의 성전이 있다. ■

난민들, 그리고 76가지의 기타 재난과 관련하여 미화 1,490만 달러의 현금과 물품들을 기부했다.

영국의 회원들이 극심한 홍수에 대처하다

영국의 중부 및 서부 여러 곳에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하여 글로스터셔 지역의 15,000 가구에 전기가 끊기고 350,000명의 사람들에게 수도물 공급이 중단된 7월, 서유럽 지역의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케네스 존슨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글로스터셔 지역의 구제 활동을 위해 적십자사에 25,000 파운드를 기부했다. 셰필드 근교의 교회 지도자들도 관계 당국과 함께 해당 지역에 청소용품과 기타 비상 구호품을 지급했다. 회원들은 영국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남긴 여파를 말끔히 치우기 위해 이웃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세번 강, 에이번 강, 그리고 템스 강 주변이었다. 영국 해군 헬리콥터들과 직원들은 물에 1.8미터 깊이로 잠긴 지역의 인근 주민들을 구조했다.

당국이 단수된 가구의 80퍼센트를 다시 연결하는 데는 최소한 일주일의 걸렸으나, 상수 처리장의 고장으로 인해 얼마 동안은 끓인 수도물도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았다. 다수의 회원 가정은 홍수로 피해를 입긴 했지만 회원과 선교사들 중 생명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잉글랜드 힐 스테이크 센터는 막대한 양의 물로 피해를 보았다.

앤소니 페리 환경협회 대변인은 BBC(영국 방송)를 통해 이 지역에서 그 정도 규모의 홍수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947년 3월에 영국 남부, 중



소방관들이 200채 이상의 가구를 불태운 캘리포니아 들불의 진화 작업을 위해 모의 훈련용으로 방화한 불을 지켜보고 있다.

부 지방, 이스트 앵글리아(동부 지방), 노스요크셔(북부의 주)의 불어난 강물로 독들이 터져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으나, 이번 홍수는 그 당시 입었던 피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교회가 일본에서의 지진과 태풍에 대처하다

일본은 남부를 강타한 태풍 마니와 북부에서 발생한 진도 6.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07년 7월 16일, 진도 6.8의 강진이 가시와자키시 근방의 일본 서부 해안을 강타하여 최소한 아홉 명이 사망하고 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고 무너진 800여 가구 중 300 가구는 가시와자키시에 위치하고 있다.

약 9,000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야만 했고, 수만 명이 전기, 가스, 수도 물 없이 수일간 생활했다.

한 회원 가정의 집도 이 지진으로 무너졌다. 집이 붕괴될 당시 연로한 회원 한 명이 집안에 있었으나,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구조되었다. 그 밖의 모든 선교사들과 회원들은 무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지진은 진원지에서 남쪽으로 201킬로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도쿄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다.

시속 160킬로미터의 지속적인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마니는 2007년 7월 15일 규슈와 시코쿠 섬의 남부를 휩쓸고 지나갔고, 이로 인해 세 명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약 30,000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 보고에 의하면 15채

의 가옥이 파손되었고 1,500채의 가옥은 물에 잠겼다. 한 회원의 집은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나갈 때 손상을 입었으나, 부상을 입은 회원이나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고, 교회 역시 재산 피해가 없었다.

이 두 차례의 재난이 지나간 후,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정부 관리들과 협의했다.

교회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 제품을 제공한다

교회는 또한 지난 6월 레이크 타호 근방의 캘리포니아 마이어스 지역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을 집 밖으로 몰아낸 화재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호 기금을 지역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네바다 펠론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은 비상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용 보급품을 대피자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보급품에는 회원들이 준비한 위생용품과 담요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대피자들은 호텔에서 묵었지만, 필요한 경우 교회는 지역 집회소를 피신처로 제공하기도 했다.

총 276채의 건물과 가옥을 불태운 불길은 어떤 집들은 그냥 지나쳤고 어떤 집들은 전소시켰다. 피해를 입은 동네에는 통나무집, 아담한 집, 백만 달러짜리 별장 등이 있었다.

또 다른 500채의 가옥을 불태우려는 화재의 불길을 잡기 위해 1,800명 이상의 소방관과 일곱 대의 헬리콥터가 동원되었다.

집과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한 회원 가족이 있다. 이들은 현재 친척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이어스 지역에서 최소한 17채의 다른 회원 가족이 화재의 위협을 받아 가족들 모두가 대피했다.

지진이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를 뒤흔들다

2007년 6월 13일,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하여 30초간 건물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이 지진은 과테말라시티로부터 70마일(112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깊이 40마일(64킬로미터)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나, 쓰나미의 위협은 없었다.

이러한 강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사실상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2001년, 두 차례의 지진이 엘살바도르에 발생함으로써 수도인 산살바도르 근방에 산사태가 일어나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총 1,150여 명이 사망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중미 지역 사무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인한 회원과 선교사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잠재적인 필요 사항을 집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교회가 콜롬비아의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기금을 지원하다

교회는 6월초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집을 잃은 콜롬비아의 여러 지역에 비상 기금을 전달했다.

폭우는 이 나라의 대부분에 피해를 입혔는데 특히 북부 지방이 심각했다. 2007년 3월, 장마철이 시작된 이래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270,000채의 집과 상가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호주에서의 홍수가 지나간 뒤 회원들이 복구 및 청소를 돕다

아홉 명이 사망하고 여러 보험회사들

이 호주 달러로 3억 달러 이상을 보험금 청구 금액으로 대비해야 했던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해, 2007년 6월 10일 일요일,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성찬식을 마치고 교회에서 나와 모래 주머니를 만들고 청소를 도왔다.

이 홍수로 인해 약 1,700가구의 가족들이 대피해야 했다. 주 비상 대책 위원회는 홍수가 발생한 주말 동안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총 13,830통이었던 것으로 기록했다.

헌터 상공회의소 소장인 더그 패리쉬는 월젠드의 소매 지역 상가와 카디프의 산업 지역이 다시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호주 국민들에게 전했다.

6월 12일, 30,000채 이상의 가구들이 여전히 단전된 상태였으나, 이것은 주말 동안 130,000채의 가구가 단전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투게라 레이크 근방의 치타웨이 베이의 홍수는 점차 잦아들어 4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교회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인 깨끗한 물

피지 나부니모노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는 이 마을을 지나는 강물을 식수로 사용했었다. 그러나 상류에 있는 소 목장, 폭풍우 및 기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 강물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게 되어 최근 세계의 물 저장용 탱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저장용 탱크들은 교회의 인도주의 서비스의 후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교회에서는 피지 전역에 이와 유사한 탱크를 50개 이상 설치했다.

나부니모노 마을의 추장인 토무자니 보기니발루씨는 “이제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고 마을 어디에서든 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피지에서 인도주의 서비스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리오 라이트 장로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탱크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 물 탱크를 유지 보수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용과 노동으로 탱크를 놓을 벽돌과 콘크리



교회의 지원에 의해 이제 막 새로 설치된 피지의 한 물 탱크에서 호세바 비티나블라기씨가 처음으로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있다.

트 기반을 만듭니다. 게다가 한 주민을 탱크 관리자로 지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유용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인 호세바 비티나블라기씨는 탱크를 설치한 이후에 생긴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의 진흙 바닥은 정수 시스템이 없어서 더럽습니다. 새로 설치한 탱크를 사용한 후로 이미 마을 사람들의 피부가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깨끗한 물이 든 플라스틱 물통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교회의 주된 인도주의 사업 중 하나이다. 2006년에는 34개국에서 깨끗한 물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깨끗한 수원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지대하다. 십억 명 이상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식수로 인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 설사, 장티푸스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염병의 90퍼센트는 비

위생적인 물 공급에서 기인한다.

교회 프로그램은 지역의 필요 사항과 요구 사항에 따라 우물, 시추공, 저장용 탱크 및 정수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교회의 인도주의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자 브렛 배스 형제는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찾을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피지의 경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했고, 그런 다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여러분은 준비 되어 있습니까 ?

때때로 어느 가족이나 사고, 질병, 실직, 또는 기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 동안 비축해 둔 자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우 리 집 근처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이웃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저는 곧 이런 재난의 시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 남편과 제가 이웃을 돕고자 동분서주했을 때 사람들이 당장 필요했던 것들은 바로 식수, 컵, 기저귀, 아기용 분유, 신발, 담요, 갈아입을 옷, ... 애완동물 운반함 및 애견용 가죽끈, 그리고 사람들이 지낼 거처 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캔자스 주 위치타에 거주하는 베키 이 러들로 자매는 말한다.

자연 재해는 우리가 가정에 비축해 둔 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여러 어려움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의 주 수입원인 사람이 실직하게 되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가족의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도 재해 중 한 가지에 속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 덴버에 거주하는 영 가족은 제프 영 형제가 실직하게 되자 수입이 없게 되었다.

남편의 실직에 관하여 조이 영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남편이 법학 학위가 있으니까

언제나 좋은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죠. 아무리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다 해도 누구나 수입의 근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구요? ... 몇 년 간의 결혼생활 동안 우리는 선지자의 권고의 말씀에 따라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종류의 통조림 식품과 냉동고에 가득 찬 야채와 고기 이외에도, 밀, 쌀, 콩, 분유, 밀가루, 설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음식에 의지했습니다. 수입이 없어도

지난 호의 Random Sampler 아이디어

엔 사인의 Random Sampler 기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시작 방법”에서부터 “비상시를 위한 저축”까지의 주제를 담은, 이전에 출간된 Random Sampler 기사 중 몇 개를 모은 것이다. 해당 기사를 읽으려면 www.lds.org로 가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Magazine”, “Ensign”, “Past Issues” 순으로 선택한다. 그런 다음, 원하는 연도와 월을 선택한다. 목록 맨 아래 부분의 “Random Sampler”를 클릭한 다음 해당 기사를 찾는다.

이 기사들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앞으로 리야호나 지역소식란에 조금씩 인쇄되어 소개될 것입니다.

- “가정용 비축-시작 방법”, *Ensign*, 1986년 4월호, 64~65쪽.
- “비상용 식수 비축”, *Ensign*, 2006년 8월호, 71쪽.
- “기름 비축”, *Ensign*, 1999년 6월호, 71~73쪽.
- “식량 비축: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Ensign*, 1981년 8월호, 54~55쪽.
- “일 년분 식량 비축”, *Ensign*, 2006년 3월호, 70쪽.
- “비축한 식량 보관 방법”, *Ensign*, 2006년 1월호, 70쪽.
- “비축한 식량 맛내기”, *Ensign*, 1990년, 6월호, 72쪽.
- “이것이 식량 비축인가!”, *Ensign*, 1990년 3월호, 71쪽.
- “오늘을 위한 준비: 의료 기구”, *Ensign*, 1981년 7월호, 54~55쪽.
- “정원 가꾸기”, *Ensign*, 1979년 3월호, 66쪽.
- “재난이 닥쳐올 때”, *Ensign*, 1994년 8월호, 71쪽.
- “금고에 보관할 물건들”, *Ensign*, 1988년 8월호, 72~73쪽.
- “자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 *Ensign*, 2000년 3월호, 68~69쪽.
- “실직했습니까?”, *Ensign*, 2004년 2월호, 73쪽.
- “비상시를 위한 저축-분별 있는 방법”, *Ensign*, 1992년 2월호, 65쪽.



가족이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었습니다.”²

이것은 준비를 잘하여 직접 축복을 체험한 여러 후기 성도들의 간증들 가운데 단지 두 가지 예일 뿐이다. 브리검 영 회장 이래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음식, 의복, 주거지를 위한 기초를 놓으라”³고 권고하고 격려해 왔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은 계속되어 왔으며 더욱 분명해졌고 아직도 확고부동하게 자리잡고 있다.

절약하는 생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 하는 과정에서 후기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원이 www.providentliving.org에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구직, 가정용 비축, 교육 및 문맹퇴치, 가족 재정, 사회적 및 정서적 힘, 신체적 건강 및 기타 주제에 관한 폭넓은 정보가 들어 있다. 이곳에는 또한 복지 서비스와 구직에 관한 정보가 있다.

추가 자료

교회는 중요한 복지 원리의 이해와 가르침을 돕기 위해 많은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들에는 비디오, 팸플릿, 책자 및 지침서 등이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 (04007 320), 팸플릿 (4쪽)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04008 320), 팸플릿 (4쪽)
- **Basic Self-Reliance (기본적인 자립)** (32293), 지침서 (152쪽)
- **Essentials of Welfare (복지의 본질)** (53045), 비디오 (여섯 부분, 93분)
- **금전 문제에서 하나가 됨** (33293 320), 팸플릿 (12쪽)
-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32296 320), 16개 언어로 출판된 팸플릿 (27쪽)

이용 가능한 자료들의 전체 목록은 인터넷 www.providentliving.org에 게시되어 있다. 홈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 “Helps for Church Leaders”를 선택한 다음, “Find a Tool or Resource”를 선택하고, “Books, Videos, pamphlets, and Forms”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들 목록으로 간다.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교회의 온라인 배부 센터 www.ldscatalog.com를 통하여 주문할 수 있다.

준비하자

비록 우리가 비축한 자원을 사용해야 할 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준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선 순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저는 우리가 주님의 빛과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도와 주시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⁴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여 걸음”으로써 준비된 자가 되도록 하자. ■

주

1. “재난이 닥쳐올 때”, *Ensign*, 1994년 8월호, 71쪽.
2. “실업 상태를 극복함”, *Ensign*, 1991년 2월호, 42쪽.
3. 브리검 영 설교집, 발췌, 존 에이 윌소 (1954), 16쪽.
4.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Ensign*, 2005년 11월호, 62쪽.

후기의 선지자들이 주는 준비성에 관한 말씀



دون هينكلي (1910~)
제15대 교회 회장

“약간의 돈과 더불어 식량을 보관해 두는 가장 좋은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 프로그램은 우리

자신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집에 있는 밀가루 다섯이나 여섯 통이 복지 센터에 있는 많은 양보다 낫습니다. ... 우리는 일주일분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 달분으로, 그런 다음 석 달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식량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8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1899~1994)
제13대 교회 회장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는 계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듯이 식량 비축에 관한 계사는

오늘날 우리의 현세적인 구원에 필수적입니다.”(“너희는 준비하라”, *Ensign*, 1974년 1월호, 69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1895~1985)
제12대 교회 회장

“우리는 여러분에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모든 식물을 직접 재배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딸기류의

과실 덩굴, 포도덩굴, 과일 나무 등을 재배하기에 좋은 기후라면 그것들을 심으십시오. 마당에서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십시오. 아파트나 콘도에 사는

사람들도 화분이나 식물 재배 용기에 약간의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 정원을 비옥하게 가꾸고 말끔하고 보기 좋게 꾸미십시오.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각자에게 책임을 분담시켜 함께 참여하게 하십시오.”(“가족의 준비성”, *Ensign*, 1976년 5월호, 124쪽)



해롤드 비리 (1899~1973)
제11대 교회 회장

“우리는 긴급한 상황이 한 가족에게 일어나든 또는 한 지역 전체에 일어나든, 우선 개인이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 후 친척이 나서서 모든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감독의 창고에서 일용품과 물품들을 공급하게 되고,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에서는 금식 헌금을 통해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상호부조회와 신권 정원회가 재할 과정을 돕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리* [2000], 171쪽)



조셉 필딩 스미스 (1876~1972)
제10대 교회 회장

“개척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직접 생산하며 가진 것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다.”(“개척자 정신”, *Improvement Era*, 1970년 7월호, 3쪽)



윌포드 우드럽 (1807~1898)
제4대 교회 회장

“우리는 후기 성도들이 종종 빛을 내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무거운 부채를 지는

나쁜 습관을 길러 마침내 집과 다른 재산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 경고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아 왔습니다. ... 우리는 가능한 한 구입하는 것은 바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 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 232~233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 (1870~1951)
제8대 교회 회장

“만일 어떤 사람이 기근의 날에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가르침에 따르는 대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낭비해버린다면, 그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종교를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Deseret News*, 1868년 3월 4일, 26쪽)



브리검 영 (1801~1877)
제2대 교회 회장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들을 조달할 수 없다면, 환난과 기근의 날이 올 때 얼마나 많은

지혜를 뽐낼 수 있으며 자신의 재능이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Deseret News*, 1860년 7월 18일, 153쪽)

나눔을 실천하는 후기 성도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모사이야서 2장 17절)

사랑과 온정의 달 12월을 맞이하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는 후기 성도들을 만났다.

“봉사는 등잔을 채우는 일입니다” - 순천 지방부 정순이 자매



신을 훌쩍 넘긴 나이에 몇 년째 편도 6시간거리의 성전 봉사를 거르지 않는 정순이 자매. 그녀는 벌써 4년째 ‘나눔의 집’의 자원 봉사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원 봉사

자가 되기 전에도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남몰래 도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돈으로 봉사하는 일은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다. 바로 그때 ‘포스코 나눔의 집’에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이를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정순이 자매는 바로 지원을 했고, 그날 이후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준비해 배식하고 정리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무료 식사 봉사의 특성상 언제 봉사 의뢰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열일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봉사 현장으로 달려간다. 적게는 140여 명, 많게는 170여 명이 모이기에 그녀의 약한 무릎과 허리로는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고생스럽다. 하지만 정순이 자매는 힘든 내색 없이 젊은 봉사자들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봉사를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정순이 자매는 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오래도록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히며 식사를 끝내고도 잘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부축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말한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봉사를 통해 주변에 참된 복음을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소망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 늘 안타깝다는 정순이 자매. 그녀의 마지막 한 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울린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며, 그늘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피곤함보다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조연화 기자>

“제가 받고 있는 축복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 서울 동 스테이크 자매들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한숙자 자매는 일 년 전쯤부터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주축으로 교회 밖에서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이우영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광명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봉사할 것을 제안 받았다. 이우영 회장은 영어 수업 봉사 등으로 이미 광명 보육원과 인연을 맺고 있었고, 한숙자 자매는 그런 이 회장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보육원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른 명 가까이 되는 보육원 아이들의 머리를 자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이라 더 어려움이 컸다. 그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최갑선 자매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봉사를 할 때마다 미용실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갑선 자매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웃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사랑을 떠올리며 자신이 기꺼이 봉사를 해야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한다고 힘들 거라며, 상호부조회 몇몇 자매님들과 이웃 아주머니들은 종종 반찬을 전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도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 기꺼이 봉사하는 것이 제가 받고 있는 사랑과 축복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봉사하러 가는 날이면 보육원 아이들은 아침부터 들떠 있다. 이제는 제법 친해져 머리를 자르는 내내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손질된 머리를 보며 환하게 웃기도 한다. 자매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보람을 느낀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항상 날이 저문다. 땀에 등이 축축하게 젖을 만큼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자매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감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다는 충만함,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얻은 행복과 기쁨 등이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한숙자 자매는 봉사하는 매 순간이 기쁘고 축복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해야 할 일이며 모두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큼 봉사를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일이나 봉사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이들과 이야기 하면서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그들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고, 최갑선 자매님과 이영옥 자매님, 박정옥 자매님, 그리고 박오숙 자매님이 항상 웃는 모습으로 즐겁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고무되고 있습니다.”

참된 봉사란 “그 행위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맘이 함께해야 한다.”는 최갑선 자매의 말처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서울 동 스테이크 자매들이 있기에 이 겨울은 따뜻하다.

“봉사는 즐거운 것” -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청소년들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청소년들은 매달 한 번씩 노인실비 요양원인 ‘전주 복지원’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

2006년 8월부터였으니 일 년이 넘는 지금은 말 그대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만큼 가까워졌다. 복지원에 있는 노인들에게도 중앙 와드 청소년들은 귀여운 손자손녀들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일회성 봉사에만 그치는 요즘 일 년 넘게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 하지만 중앙 와드 청소년들은 즐겁고 재미있게 복지원의 여러 일을 돕는다. 처음에는 중앙 와드 청소년들도 상호 향상 모임 때 비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에 중앙 와드의 하봉순 자매가 ‘전주 복지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와 기쁨을 깨닫게 해 주고 싶었던 와드 청년 청년 회장단의 소망으로 매달 한 번씩 하는 봉사 활동이 계획되었다. 하지만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운동이나 다른 즐거운 활동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봉사 활동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회장단의 예상을 뒤엎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봉사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닦는 일도 어려워하였고, 무거운 빨감을 나르는 일도 청소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중앙 와드 청소년들은 그 모든 일에 기꺼이 참여했고 지금은 화장실 청소도 흔쾌히 하고 있다. 덕분에 비록 청소년들이지만 빨감을 패서 나르고, 김장을 하고, 휠체어를 밀고,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는 등 많은 일들을 해낸다. 특히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살려서 위문 공연을 할 때면 복지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한다. 중학교 1학년이지만 어엿하게 봉사 활동을 하는 유다린 자매는 이렇게 간증한다. “저는 집에서 막내로서 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편인데, 복지원에 가서는 제가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어 드리고 함께 산책하면서 실제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봉사는 즐거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달 봉사를 함에 따라 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있다는 중앙 와드 청소년들. 그들의 구슬땀과 해맑은 웃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또 다른 표본일 것이다. ■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어요!

저희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신앙개조 제1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세 분이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 엄마 머리 안 아프게 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 했더니 엄마가 다 나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사랑해요.

김수아, 여, 7세, “하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 교회는 만들어 졌을까요?
왜! 우리가 죽으면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경전을 번역 했을까요?
다 예수님 때문이죠!

김태양, 남, 13세,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동생과 저를 두고 외출을 하셨습니다.

동생과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전화로 밖에 나가
놀이터에서 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부엌에 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서 타려고 하는 것이라서 껐습니다.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 놀았다면 우리 집은 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제가 성신의 도움을 받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홉 살 때 아빠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위험할 때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 주십니다.

유지수, 남, 10세, “성신이 도와주심을 압니다.”

태양

태양은
참 크고 밝다.

태양은
참 아름답다.

태양은
우리를 비춰준다.

주님은
우리를 비춘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주님은
살아있는 태양이다.

주님은
걸어다니는 태양이다.

유아영, 여, 12세, “태양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주님이 있어야 살 수 있죠!”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 수업에 가야 하는데,
친구가 엄마 몰래 빠지고 놀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함국빈, 여, 9세, “이젠 저도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아서 항상 성신이 함께 하실꺼예요”



“하나님은 늘 웃고 계시요.”
김소희, 여, 8세



“예수님 사랑해요.”
김수아, 여, 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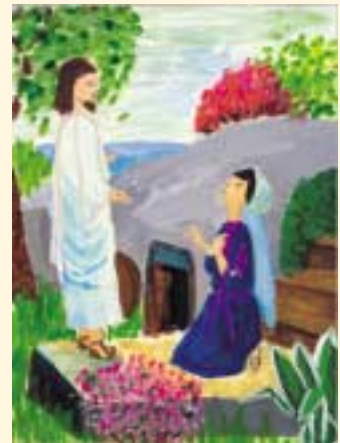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김시연, 여, 9세



“잘 그렸죠?”
박성현, 남, 8세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박재현, 남, 13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유지현, 여, 12세



“즐거운 세상이죠?”
이서연, 여, 8세



김민서, 여, 7세

건강하고 예쁜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잘 돌볼게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김민서 올림.

“기억하시죠? 작년에 예수님한테 동생 빨리 갖게 해 달라고 편지 보냈던 그 민서예요!”

수지 와드 헌납식

2007년 9월 23일 새로운 수지 와드 건물의 헌납식이 있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에번즈 장로 부부와 최윤환 장로 부부, 그리고 버튼 서울 서 선교부 회장 부부와 영동 스테이크 내의 많은 회원이 참석한 이번 헌납식은 아름다운 수지 와드 건물 만큼이나 영적이고 특별했다. 수지 와드 건물을 신축하지는 논의는 수지 지부에서 와드로 승격된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341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를 진행했지만 정부의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부지 매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나 새로운 와드 건물을 소망하는 수지 와드 회원들의 간증과 염원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고, 결국 새 부지를 계약한지 2년 1개월 만에 헌납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수지 와드 회원들은 교회 부지 구매 과정과 건축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좋은 건물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최윤환 장로는 말씀을 통해 “이 건물을 어렵게 얻은 만큼 회원들이 노력하여 이 자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라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또

한 에번즈 장로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수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사람들에게 인

식되고 교회가 이곳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했다. 와드 승격에서부터 부지 매입, 그리고 헌납식 준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수지 와드의 정해영 감독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남겼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건물 헌납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건물 부지의 매입부터 건물 헌납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한다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축이 지연되어 조바심을 낼 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건물을 헌납할 때 보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2007년 9월 7일, 해가 저물기 시작한 저녁 무렵부터 한국 서울 성전에 외국인 형제자매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24시간 예비 의식 진행이라는 특별한 일을 위해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기쁨, 그리고 일말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24시간 예비 의식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계획되었다. 당시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들과의 모임에서 이미 예비 의식이 끝난 자매들에 비해 형제들을 위한 예비 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 매드슨 당시 한국 서울 미군 지방부 회장은 24시간 예비 의식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전종철 성전 회장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9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의식을 집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24시간 예비 의식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있었다. 8

월 한 달 동안 미군 지방부에서는 부족한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 추가로 부름을 주었다. 또 새로 부름 받은 봉사자와 경험이 많지 않은 봉사자들을 따로 훈련시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일은 의식 참여자들과 봉사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서 성전 추천서를 가진 미군 지방부 내의 모든 형제들이 의식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다. 그리고 9월 7일 저녁 6시부터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었다. 24시간 동안 의식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계획보다 더 오래 참여하고 머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군 지방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 성전 직원들의 도움도 컸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켜가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누구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합시다,” “제 생애에 성전에서 했던 경험 중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훌륭한 간증을 남기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성전 봉사자로 성별된 16명과 의식에 참여한 42명의 회원들이 성전 밖으로 나온 것은 다음 날인 9월 8일 오후 6시. 그리고 그 순간 휘장 저편의 1,158명의 영혼이 예비 의식을 받아 엔다우먼트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 존 매드슨 형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국 서울 성전은 매우 특별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한국 성도들의 희생과 간증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이 성전 의식에 참여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안전과 평화를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 역사 자료 수집 안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목적별 증명서(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이루어짐)로 정보를 제한하고 발급권자를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가족 역사 자료 수집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족 역사부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인 늦어도 2007년 12월까지 모든 가족/개인 회원들께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상들(예: 부친, 조부, 증조부/고조부, 외조부, 외증조부/외고조부 등등)의 호적 및 제적 등본을 신청해 발급 받을 것을 제언합니다.

가족 역사 사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족보를 갖고 계시지 않은 가족/개인 회원들께서는 호적 및 제적 등본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또한 호적 및 제적 등본을 미리 소지하고 계신

다면, 향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적 및 제적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공인 인증서를 갖고 계신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egov.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 종합민원 안내 > 호적 > 새로운 가족 관계 등록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minwon/min_8/min_8_6/index.html)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가족 역사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

무료 전화 상담: 003-0813-1596

E-mail 문의: koreansupport@familysearch.org

교회 잡지(리아호나) 구독료 자동 이체 안내

정기적으로 교회 잡지(리아호나, 엔사인, 뉴이라, 프렌드, 처치 뉴스)를 구독하는 회원들이 매년 재연장을 위해 구독료를 송금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은행을 통한 구독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07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10년 이상 자동 이체를 하신 모든 회원에게는 '리아호나 일 년 구독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동 이체 신청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이체 거래 은행 정보

거래 은행: 신한 은행 계좌 번호: 100-001-389810

예금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2. 자동 이체 기간 및 납부일

자동 이체 기간: 최소 5년 이상부터(10년 이상 장기 이체도 가능)

자동 이체 납부일: 매월 5일로 지정함.

3. 가입절차 및 방법

본인이 직접 신한 은행을 방문하여 자동 이체 신청서를 작성함.

4. 가입 시 주의사항

신한 은행의 계좌끼리만 자동 이체 가능함.

타 은행 계좌에서 신한 은행으로 1년 단위 자동 이체는 불가능함.

5. 문의 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워드 지부의 게시판에 붙은 알림을 참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02-2232-1441, 내선 452, 배부센터 박일훈 형제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청녀 창립 기념행사 2007년 11월 3일 마산 스테이크 청녀 창립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청녀 창립 기념행사는 일년 동안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를 바탕으로 가졌던 상호 향상회 활동 사례 발표와 청녀들의 작품 전시로 진행되었다. 스테이크 내의 많은 와드, 지부에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에 나오는 가치관 활동으로 상호 향상 모임을 진행했고, 그것을 통해 많은 간증을 얻고 재능을 발전시키며 미래의 지도자, 미래의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학 기자>

성인의 날 활동 모임 2007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통일동산 교육센터에서 스테이크 내의 부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의 날 활동 모임을 가졌다. 첫날 밤 9



시에 이광준 스테이크 회장의 환영 말씀으로 대회가 시작되었으며 최재현 형제와 이은정 자매 부부의 진행으로 즐거운 무도회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음악제는 각 회원들이 숨은 실력을 발휘하며 우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 노년의 모임 지난 2007년 10월 21일 서울 강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김종열 형제 초청 노년의 모임을 가졌다. 김종열 형제는 신앙 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때 오히려 쉽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절벽에 붙어 사는 ‘바람새’를 비유로 들며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 나머지는 주님의 인도에 맡기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권유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이지은 기자>

체육 대회 2007년 10월 3일 서울 동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의정부 서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모처럼 휴일을 맞은 회원들은 이우영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 하에 와드 대항으로 줄넘기, 계주(선교사 대항, 와드별 대항), 피구, 축구(자매 축구, 어린이 축구, 형제 축구) 등을 하면서 즐거운 가을 한때를 보냈다. 순위에 연연하지 않은 자유

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땀 흘리는 가운데 서울 동 스테이크 회원 간의 우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장효진 기자>

합창 대회 2007년 10월 27일 동대문 와드에서 민혜기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 하에 스테이크 합창 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갖고 뒀던 실력들을 한껏 뽐낼 수 있었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각 와드의 회원들이 단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사회를 맡았던 최옥현 자매는 “멀리서 오늘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제일 먼저 왔던 춘천 와드 회원들의 신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제2회 가을의 소리 2007년 10월 27일 순천 지방부에서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키우고 그 재능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작년에 이어 제2회 가을의 소리를 열었다. 이날 모임의 1부에서는 각 지역의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특기로 갖고 있는 여러 분야의 예술 작품들을 출품해 전시회를 열었으며, 2부에서는 등에 업힌 아기부터 50대 회원에 이르기까지 연령대와 조직을 초월한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난타, 노래, 춤, 콩트, 뮤지컬 등 다양한 재능을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보였다.



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계란을 삶고 고구마를 찌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마을 숲을 산책하고 남원의 춘향 테마파크에서 한복 입기, 장구 배우기 등의 체험을 했다. 청소년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서 사라져 가는 옛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

전주 스테이크 (이어나 가자)

청소년 합동 모임 2007년 10월 26일 남원에서 전주 스테이크 청소년 합동 활동 모임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아궁이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5기 8명/해외 2명



강지예 자매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
부산 지방부



이가에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구예령 자매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대전 선교부



이인규 장로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유타 프로보 선교부



김병규 장로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이태희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감독: 박승호(전임: 김규호)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와 평촌 와드가 안양 와드로 통합됨
안양 와드 감독: 김원주(전임: 안양: 김원주, 평촌: 김희영)

영동 스테이크
이천 지부 지부 회장: 원복상(전임: 김근수)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감독: 최영준(전임: 심재승)



김진경 장로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대전 선교부



차지혜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서울 선교부



변창기 장로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대전 선교부



최슬기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부산 선교부

2007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7년 12월호 리아호나에 나오는 함께 나누는 시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들이다. 이 제언들에 해당하는 공과, 지침 및 활동은 이번 호의 어린이란 친4와 친5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참조한다.

1. 포장된 세 가지 선물을 전시한다.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에는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경축한다고 말해 준다.(요한복음 3:16 참조) 예수께서는 지상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그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해 준다. (초등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평안, 행복, 사랑이라는 단어를 큰 글씨로 쓴 다음, 각 단어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어 퍼즐처럼 만들어 놓는다.) 세 명의 어린이들을 불러 각각 선물 상자를 하나씩 들고 있게 한다. 어린이들이 각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때마다 그들이 받을 선물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해 줄 퍼

즐 조각을 하나씩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본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읽을 수 있는가?” (경전에서),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몸) 등. 정답이 나오면 각 어린이가 들고 있는 그 상자에 해당하는 단어의 퍼즐 조각을 준다. 어린이들이 그룹으로 함께 퍼즐을 맞추어 해당 단어를 알아내게 한다. 게임이 끝나면 평안, 행복, 사랑이란 단어를 표시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단어를 모두 맞추면 선물을 열어보게 한다. 각 선물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단어와 경전 구절이 들어 있다. 평안-요한복음 14:27; 행복-모사 이야기 2:41; 사랑-요한복음 15:13. 상자를 들고 있는 어린이에게 경전 구절을 읽게 한다. 구주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고 구주를 따름으로써 오는 평안, 행복, 사랑에 관한 간증을 전한다.



2. 베들레헴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다음 중 한 가지를 준다. 거룩한 땅의 지도, (성경이나 집회소 도서실에서 찾을 수 있다) 참조 경전 구절로 미가 5:2과 요한복음 6:51. 첫 번째 그룹에게 베들레헴의 위치를 찾아 보게 한다. 두 번째 그룹에게 미가 5:2을 읽게 한 다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그룹에게 요한복음 6:51을 읽게 한 다음,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를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베들레헴이란 단어의 의미는 “떡집”이라고 말해 준다. 생명의 떡이 떡집에서 태어났음을 지적한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찬송가, 136장) 또는 다른 성탄절 찬송가의 1절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베들레헴이 어떻게 보였을지 묘사한다.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준다.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 했다.

어린이들에게 베들레헴의 그림을 그려 보게 한다. (“그림 활동”,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61~162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심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간증한다. ■